

연구보고 07-R01-1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책임연구원 : 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순래(원광대학교 · 교수)

박철현(동의대학교 ·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상황의존론(state dependency perspective)과 모집단차별론(population heterogeneity perspective)을 바탕으로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의 유형별 실태와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음.
- 청소년비행의 발전형태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2. 연구내용

- 청소년비행의 발생추세 : 공식통계와 패널자료의 비교
- 청소년 비행의 발전경향의 유형별 실태와 원인
- 청소년 비행의 전문화 실태와 원인

3. 연구결과

- 첫째, 비행발전 단계는 주로 초기에 술과 담배 등의 지위비행에서 시작했다가 이후 점차 폭력비행이나 재산비행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음.
- 둘째, 전기간에 걸친 청소년비행의 발전양상을 분석했을 때에 그 종류는 522가지에 달할 정도로 매우 다양하였으며 522 종류의 발전양상은 크게 5가지(악화형, 완화형, 정체형, 병합형, 무비행)로 유형화할

수 있었음. 악화형은 조사대상자 전체의 1.6%를 차지하였으며, 완화형이 전체의 53.4%, 정체형은 13.4%, 병합형은 6.7%, 무비행은 전체의 2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셋째, 비행발전경향에 미치는 모집단차별성 요인들과 상황의존성 요인들의 독립적 효과를 살펴본 결과, 악화형 비행발전경향에는 상황의존성 요인들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완화형 비행발전경향에는 모집단차별성을 반영한 요인들 중에서는 충동성 그리고 상황의존성을 반영한 요인들 중에서는 학교애착, 비행친구, 낙인효과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정체형 비행발전경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모집단차별성 요인들 중에서는 가구주 교육수준, 상황의존성 요인들 중에서는 부모통제, 학교애착, 비행친구, 부모긴장, 낙인효과 등이었음. 병합형 비행발전경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모집단차별성 요인들 중에서는 자아개념과 충동성이며 상황의존성 요인들 중에서는 부모통제, 학교애착, 비행친구, 낙인효과 등이었음.
- 넷째, 다양성지수를 통해서 비행경력 다양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적은 유형의 범위에 개입하고 있었음. 다양성지수의 분포를 살펴 본 결과 완전한 전문화(하나의 비행유형만 개입함)를 나타내는 0의 값을 갖는 경우가 중2에서는 37.7%이지만, 이후 점점 증가하여 중3에서는 54.8%, 고1에서는 68.1%, 고2에서는 72.5%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집단별로는 남자청소년, 자가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 극빈층,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가 다양한 비행에 개입하고 있었음. 또한 이론적 변수별로는 결손가정이거나 비행이나 입건친구가 있는 경우, 사회적 또는 개인적 통제가 약할수록, 긴장을 강하게 느낄수록 다양한 비행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섯째, 여러 독립변수들을 도입하여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비행친구수나 자기통제력, 부모의 폭력 경험, 충비행수, 조기 중비행이 비행의 다양성에 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음. 이것은 다시 말해서, 비행친구수가 적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폭력을 덜 경험할수록, 총비행건수가 적을수록, 비행경력에 늦게 진입할수록 제한된 유형의 비행에만 개입하는 전문화경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4. 정책적 제언

- 1) 지위비행에 대한 대처매뉴얼의 개발과 시행 :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위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비행을 지속하는 비율이 높았고 폭력비행이나 재산비행으로 전이하는 경향이 강하였음. 지위비행의 이러한 잠재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지위비행청소년에 대한 대처활동은 매우 미약한 수준임. 이러한 점에서 첫째, 담당부처(예, 국가청소년위원회, 법무부, 교육부 등)에서 각 학교의 일선 담당교사나 시설단체의 지도자들이 시행할 수 있는 지위비행 청소년에 대한 일상적 대처매뉴얼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둘째, 각 학교나 시설단체에서 지위비행 청소년에 대한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에서 관련단체(예,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을 통하여 2007년 기준 연간 약 20개 정도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담배없는 맑은 학교만들기’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2) 위험집단에 대한 집중적 비행대처활동의 시행 : 본 연구에 의하면 비행청소년들 중에서 심각한 비행유형으로 발전하는 악화형과 병합형 비행발전경향을 보인 경우는 1.6%와 6.7%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의 청소년들이었음. 첫째, 청소년들 중 청소년 비행 위험집단에 대한 판별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이 시행되어야 함. 관련 정부부처(청소년위원회, 교육부 등)에서 청소년 비행 위험집단에 대한 판별 매뉴얼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나 시설의 담당교사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교사,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지역사회 관계인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청소년비행 위험집단에 대한 판별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둘째, 청소년 비행 위험집단에 대한 집중적 비행대처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우선, 관련 부처에서 청소년비행 위험집단 청소년들에 대한 분노조절, 폭력관리 등 비행대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다음으로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단체에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담당케 하여 청소년 비행 위험집단으로 판별된 청소년들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케 할 필요가 있음.

- 3) 비행악화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담당교사 연수강화 :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악화형이나 병합형 비행발전경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애착, 비행친구, 낙인효과 등이 판별되었음. 학교애착, 비행친구, 낙인효과는 모두 청소년들이 접하는 교육환경과 관련된 요인 들임. 청소년들이 학교를 친근하게 느끼고, 비행친구들과의 접촉이나 교제가 차단되고, 주위사람들로부터의 낙인을 적게 겪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의 조성이 비행악화의 방지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를 위해 일선 학교의 담당교사들의 연수시에 비행청소년들의 비행악화방지를 위한 학교애착, 낙인방지, 비행친구 교체단절 등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매뉴얼형태로 보급, 시행케하여 비행청소년들의 비행악화형 교육환경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음.
- 4)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의 개발 :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폭력비행이나 재산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이후에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 청소년생활로 회귀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또한 이들은 차후 비행에서도 폭력비행이나 재산비행을 반복하는 전문화경향이 강하였음.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 관련 담당부서에서 청소년비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에, 폭력비행청소년 특별프로그램, 재산비행청소년 특별프로그램과 같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에 보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프로그램의 보

급과 함께 관련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에 이의 시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임.

- 5) 취약집단청소년에 대한 학교-청소년지원센터간 상담지원시스템의 강화 : 이 연구에서는 자가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 극빈층,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 결손가정이거나 비행이나 입건친구가 있는 경우, 사회적 또는 개인적 통제가 약할수록, 긴장을 강하게 느낄수록 다양한 비행에 무차별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음. 학교에서 기존의 청소년상담지원시스템을 활용, 연계활동을 강화하여 이들 취약집단청소년의 비행에 대해 국가가 조기에 개입함으로써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원하고 악화의 경로를 걷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일선 학교에 CYS-net체계내의 청소년상담관련기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집단 비행청소년을 위한 학교-청소년지원센터간 연계시스템을 구축, 강화할 필요가 있음.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1. 상황의존론	9
2. 모집단차별론	12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19
2. 주요개념의 측정	24
1) 청소년비행 발전경향	24
2) 비행유형 다양성	27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30
IV. 연구결과	
1. 청소년비행의 발생추세: 공식통계와 패널자료의 비교	37
2. 청소년비행의 발전경향	45
1) 청소년비행의 발전경향	45
2) 청소년비행 발전경향의 원인분석	50
3. 비행유형의 전문화와 그 설명모델: 다양성지수를 중심으로	58
1) 다양성지수의 산출과 그 의미: 방법론적 검토	58
2) 비행경력에의 전문화 추이	60
3) 비행유형 다양성의 설명모델	66
V. 결론	
1. 연구의 요약	73
2. 정책적 제언	75
참고문헌	81

표 목차

<표 III-1> 중2 패널 2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21
<표 III-2> 중2 패널 3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22
<표 III-3> 중2 패널 4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23
<표 III-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32
<표 IV-1> 청소년비행 발생현황	38
<표 IV-2> 청소년비행 유형별 현황	40
<표 IV-3> 청소년비행의 전과별 현황	42
<표 IV-4> KYPS 연차별 청소년비행의 발생현황	44
<표 IV-5> 청소년비행의 전이분포	46
<표 IV-6> 청소년비행의 발전경향	50
<표 IV-7> 비행발전경향의 교차분석	51
<표 IV-8> 비행발전경향의 분산분석	54
<표 IV-9> 비행발전경향에 관한 Logistic 회귀분석	57
<표 IV-10> 학년별 다양성지수의 분포	61
<표 IV-11> 학년에 따른 평균 다양성지수	61
<표 IV-12> 개인적 배경요인별 집단별 평균 다양성지수의 추이	63
<표 IV-13> 이론변수별 집단별 평균 다양성지수의 추이	65
<표 IV-14> 학년별 비행유형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회귀모델1(OLS)	67
<표 IV-15> 학년별 비행유형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회귀모델2(OLS)	68

I. 서론

I. 서론

우리나라의 청소년비행은 최근 들어 안정화하는 경향이다. 공식통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비행은 1997년에 164,182명을 정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해마다 줄어들어 최근 2005년에는 86,014명으로 그동안 거의 과반수가 감소하였다. 청소년비행의 감소는 흔히 거론되듯이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인구규모의 감소를 고려해서 청소년인구 10만명당 청소년비행자의 수를 산출하여도 1997년에는 청소년 10만명당 2,643명이 비행청소년이었지만 2005년에는 1,656명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비행의 질적 측면도 과거에는 강도나 폭행 등의 폭력성 범위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절도와 사기 등이 다수를 차지하여 청소년범죄의 유형도 점차 비폭력화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최근의 청소년비행은 전체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양적으로 감소하며 질적으로는 비폭력화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반면에 우려스러운 현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이순래, 2005: p.270). 과거에 청소년비행은 일회성을 특징으로 하였다. 청소년이 비록 비행을 저질렀더라도 대부분 한두 번에 그치고 곧 정상적 청소년생활로 회귀하였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체 비행청소년 중에서 일회성 비행이었던 청소년이 80% 가량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1회 이상의 과거비행이 있었던 재범청소년은 20% 내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후 재범청소년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4년에는 전체 청소년범죄자의 40%, 2005년에는 38%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청소년비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일회성 비행의 경우는 그 폐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기의 한두 차례 비행은 이들이 아직 규범의식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규범학습을 위한 시행착오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일회성 비행은 해당청소년이 곧 정상적 청소년생활로 회귀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소년의 향후성장과정에도 별다른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에 지속적 비행의 경우는 그렇

지 않다. 같은 청소년의 반복된 비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관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지속적 비행은 해당 청소년의 향후성장에 치명적 폐해를 유발할 수 있다. 주위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를 오가고 청소년보호시설에 수용되면 이들은 성장기에 필수적인 교육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며, 부모들의 입장에서 더 이상 개선의 기대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의 보호로부터도 멀어지게 된다(Liska와 Reed, 1985: p.547-560). 현대의 경쟁사회에서 적절한 교육과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에 그 청소년의 장래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나중에 성인이 되었더라도 적절한 사회화의 부재로 인하여 좋은 직장을 갖거나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범죄적 생활에 빠져들게 될 위험성이 높다. 실제 이순래(1996: p.39)는 지속비행으로 청소년원 수용경험이 있었던 청소년들을 10년 후에 조사했는데, 이들의 66.9%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일상적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인범죄자로 발전하였다.

지속적 청소년비행의 심각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비행유형의 발전형태에 관한 현상은 제대로 연구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비행연구들이 주로 다루었던 사항은 ‘어떤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가?’ 즉 비행참여의 원인에 관한 것이었다. 기존연구를 통하여 여러 요인들이 비행참여의 계기로 지적되었는데 특히 부모와의 애착관계, 학업의 전념정도, 지역사회의 통제능력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그간의 노력으로 청소년비행의 많은 부분이 설명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연구들은 정태적 측면(static aspects)에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구별하는 요인의 판별에 집중함으로써 청소년비행의 동태적 측면(dynamic aspects)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향후 발전형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일부는 초기에 경미한 비행으로 시작했지만 비행을 거듭하면서 점차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는 악화형(acceleration) 발전경향을 나타낼 수 있고, 다른 일부는 유사한 종류의 비행을 반복하는 정체형(stationary) 발전경향을, 또 다른 일부는 비행을 지속하면서 점차 경미한 비행으로 전이하는 완화형

(deceleration) 발전경향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비행을 거듭하면서 일부는 동일한 비행만을 반복하는 전문화(specialization) 발전경로를 따를 수 있고 다른 일부는 기회가 닿는 대로 온갖 종류의 비행을 반복하는 일반화(generalization) 발전경로를 보일 수 있다.

기존연구들은 청소년비행의 정태적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동태적 측면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였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행을 저질렀던 청소년들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서로 다른 발전경향과 발전경로를 따르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초기에 유사한 비행을 저질렀지만 이후의 동태적 발전 과정에서 점차 심각한 비행으로 전이하는 악화형 발전경향과 경미한 비행으로 전이하는 완화형 발전경향이 동일한 인과과정을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황의존론(state dependency perspective)과 모집단 차별론(population heterogeneity perspective)을 이론적 배경으로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를 기술하고 인과적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황의존론이란 비행이후의 상황변화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이에 의하면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그 사람은 체포와 구속으로 자유권의 실추를 경험한다든지, 취업이나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한당한다든지, 전과자라는 낙인이 붙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변화가 비행발전의 원인이라는 것이다.¹⁾

모집단차별론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Donovan과 Jessor, 1985; Osgood et al.,1988; Rowe et al., 1990; Gottfredson과 Hirschi, 1990). 모집단 차별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상황보다는 해당청소년의 기본성향을 중요시하였다. 이들 학자들은 우선 사람의 기본성향은 어렸을 때에 형성되고 이때에

1) 상황의존론이란 용어 자체가 대두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Nagin과 Paternoster, 1991, Nagin과 Farrington, 1993). 비록 상황외존론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연구들 중에서 학습환경을 강조하였던 사회학습이론(Akers,1985)이나, 사회적 유대관계의 변화를 중시하였던 사회통제이론(Agnew, 1985), 범죄자에 대한 사회성원의 부정적 반응(negative reaction)을 강조해 온 낙인이론(Lemert, 1972), 범죄단계별로 인과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범죄경력연구(Blumstein et al., 1986) 등은 모두 암묵적으로 상황의존론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형성된 성향은 그 사람의 생애에 걸쳐 대체로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기본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성향으로 인하여 과거비행경험이 있는 사람은 차후에도 다양한 종류의 비행에 빠져든다고 주장하였다.²⁾

상황의존론과 모집단차별론 중에서 어떤 이론적 틀이 보다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일은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의 발전형태에 대한 인과적 이해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검증작업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비행의 재범현상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비행발전의 원인이 상황의존론에 일치한 것으로 판명되면 사회적 응훈련, 직업훈련,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변화와 같이 범죄이후로 악화되는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이 모집단차별론에 일치한다면 이때의 대책은 비행청소년의 개인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개발에 치중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모집단차별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Gottfredson과 Hirschi을 들 수 있다. Gottfredson과 Hirschi는 사람의 기본성향 중에서 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아통제력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자아통제력은 10-12세 이전에 가정훈육을 통해서 형성되며 만일 이때에 가정훈육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자아통제력은 적절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목전의 이익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자아통제력의 수준은 한번 형성되면 대체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아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범죄를 비롯한 여러가지 반사회적 행위를 지속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상황의존론
2. 모집단차별론

II. 이론적 배경

1. 상황의존론

상황의존론이란 기본적으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이후에 상황변화를 경험하고 이로 말미암아 앞으로 비행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견해이다(Nagin and Paternoster, 1991)³⁾. 상황의존론으로 최근에 명명되었지만 상황변화가 비행지속의 원인이라는 인식은 범죄학 연구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이러한 인식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제기되었다.

먼저 사회통제이론가(social control theorists)들은 사회유대감의 약화 현상에 주목하였다(Hirschi, 1969; Agnew, 1985). 사회통제 이론은 잘 알려져 있듯이 인간이란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야수적 존재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이같은 홉스적 가정(Hobbesian assumption)에서 사람이란 누구나가 범죄를 저지를 잠재력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잠재력을 억제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유대와 같은 사회통제기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Lee, 1993). 다시 말하여 사람들은 그대로 두면 누구나가 범죄자가 될 소지가 있는데 정서적 유대(attachment), 합리적 유대(commitment), 행위적 유대(involvement), 신념에 의한 유대(beliefs)와 같은 사회적 유대의 작용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⁴⁾ 사회통제이론가들이 비행지속현상과 관련하여 우려했던 사항은 비행을 저지르면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어 그 사람의 차후 비행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어떤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면 부모는 청소년에 대해서 애정을

3) 이론적 논의에 대해서는 이순래(1995: 109-120) 참조.

4) 여기서 정서적 유대란 가족간의 애정이나 친구와의 우정과 같이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과 맺는 유대관계를 말하며, 합리적 유대란 장래희망이나 앞으로의 계획과 같이 본인의 미래와 결부된 유대관계이며, 행위적 유대란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몰입함으로써 갖는 유대이며, 마지막으로 신념에 의한 유대란 사회규범이나 도덕을 수용하는 정신적 유대감이다.

갖기 어렵고 기대감도 잃게 되어 즉 청소년과 부모의 정서적 유대(attachment)가 약화되기 때문에 청소년은 그만큼 재범과 같은 지속적 비행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Agnew(1985)가 비행을 저지른 이후의 사회적 유대를 조사했을 때에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유대감은 비행이전에 비해서 유의할 정도로 약화되었고 이들의 차후비행은 약화된 사회적 유대에 의해 상당부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학습이론가(social learning theorists)들은 상호작용관계의 변화와 범죄가치의 학습에 주목하였다(Sutherland, 1955; Akers, 1985). 사회학습이론가들의 범죄발생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범죄란 주위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의미체계나 범죄기술을 학습하고 강화함으로써 저질러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금까지 본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청소년도 주위 비행친구로부터 본드사용이 나쁘지 않다는 가치나 본드사용방법을 학습함으로써 본드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범죄지속현상과 관련하여 사회학습이론가들이 우려했던 사항은 범죄를 저지르면 다른 범죄자들과 교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이들로부터 범죄를 옹호하는 가치나 범죄기술을 더욱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즉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면 이들의 상호작용하는 집단은 대부분 다른 범죄자들이고 교도소 석방이 후에도 이들과 계속적인 교분관계를 가지게 되어 이들로부터 범죄가치를 학습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범죄지속가능성은 과거에 비해서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비행이나 범죄이후의 상황변화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학자들은 낙인이론가(labeling theorists)들이다(Becker, 1963; Scheff, 1966; Lemert, 1972). 그중에서 Lemert(1972)는 범죄를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로 구분하고 일차적 일탈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차적 일탈은 주로 범죄이후에 변화된 주위사람들의 반응양태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최초 범죄를 저지르면 주위사람들은 그 사람을 범죄자라는 낙인을 통해서 보고 앞으로의 행동도 그러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것이 거듭됨으로써 낙인된 범죄자는 주위의 부정적 인식을 받아들이게 되며 (self-fulfilling

prophecy) 이에 따라 그 사람은 범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고질적 범죄자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Braithwaite는 이러한 점에서 범죄자들이 겪는 상황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주위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대함으로써), 그 사람은 자신을 주변인으로 생각하며 범죄를 옹호하는 하위문화에 이끌리게 된다. 이에 따라 점차 범죄자로서의 자의식을 갖게 되며,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회에 대해서 본인은 피해자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 사회에 대한 태도 역시 적대적이 되며 본인이 겪은 실추감으로 인하여 점차 지하세계에 빠져 들고 이는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점차 지속적인 범죄자로서의 생활에 빠져 든다.(Braithwaite, 1989:18)

범죄이후의 낙인효과가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있었다. 그중에서 Jensen(1972)은 낙인효과가 범죄자의 자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낙인이론가들의 주장과 일치하였다. 공식적 낙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낙인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범죄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Farrington(1977)은 Jensen의 연구를 확대하여 범죄이후의 낙인경험이 지속적인 범죄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다. Farrington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런던에 거주하는 400명에 대한 시계열자료이었다. 연구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낙인경험과 자아의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앞서 Jensen의 연구와 같이 낙인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범죄자로서의 자아의식이 강하였다. 즉 낙인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을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문제아 내지 사회부적응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자아의식과 범죄지속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에 자기 자신을 범죄자로 간주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범죄를 지속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상과 같이 범죄학 연구에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이후의 상황변화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중에서 사회통제이론가들은 사회적 유대의 약화현상을 상황변화의 중요한 내용으로 지적하였고, 사회학습이론가들은 상호작용관계의 변화와 범죄가치나 범죄기술의 습득에 특히 관심을 두었으며, 낙인이론가들은 주위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양태를 지속적 범죄행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비록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기존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의 상황은 과거에 비해 보다 나쁜 방향으로 변화하고 이러한 상황악화로 인하여 그 사람은 앞으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비행유형의 발전형태에 대한 상황의존론의 견해는 다분히 악화형 발전경향과 전문화 발전경로이다. 예컨대 사회학습이론이나 차별접촉이론은 비행 이후에 변화하는 상황으로 다른 비행친구들과의 상호작용관계를 들고 있다. 비행 이후에 상호작용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비행청소년들은 비슷한 유형의 비행을 저지른 친구들과 만나고 교분을 나눌 기회가 많을 것이며, 이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비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술을 배울 것이며 이러한 비행을 옹호하는 가치를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의 비행발전형태는 점차 악화되고 특정한 유형의 비행을 반복하는 악화형과 전문화가 보다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이 상황의존론을 반영하는 이론들의 견해이다(Nagin과 Paternoster,1991).

2. 모집단차별론

상황의존론에 반하여 모집단차별론은 개인의 기본성향을 범죄지속의 중요한 인과요인으로 고려하는 입장이다. 모집단차별론의 골자는 한마디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성향은 사람마다 서로 차별적이며 또한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대체로 불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범죄성향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바로 이러한 높은

범죄성향으로 인하여 과거범죄자들은 지속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모집단차별론도 상황의존론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개인의 성향이 범죄지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식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예컨대, Donovan과 Jessor(1985)는 비행일반징후(a general syndrome of deviance)라는 용어로 개인의 범죄성향을 고려했으며, Osgood등(Osgood et al., 1988)은 일반성향(a general tendency)이라는 용어로, Rowe등(Rowe et al., 1990)은 잠재적 특성(a latent trait)이란 용어로,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자아통제력(self-control)이란 용어로 개인에 내재하는 범죄성향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학자들 중에서 모집단차별론에 가장 체계적으로 접근한 학자는 Gottfredson과 Hirschi이었다. 이들은 1990년에 "범죄의 일반이론"(A General Theory of Crime)이란 저서를 통해 범죄성향의 형성배경, 범죄성향의 특성, 범죄성향과 범죄지속과의 관계 등을 논의하였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발표저서에서 범죄성향으로 고려했던 사항은 개인의 자아통제력이었다. 우선, 자아통제력의 형성과 관련하여 Gottfredson과 Hirschi는 이것은 10세-12세 이전의 어린 나이에 형성되며 자아통제력이 제대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보았다. 첫번째 조건은 어렸을 때에 개인의 행동을 늘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두번째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며, 세번째 조건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이를 징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10-12세 이전에 필요한 수준의 자아통제력을 형성할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아통제력은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자아통제력의 특성으로 이들이 지적했던 내용은 자아통제력의 수준은 어린 나이에 한번 형성되면 그 사람의 일생동안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렸을 때의 성향이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Gottfredson과

Hirschi의 주장은 일반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Polakowski(1994)는 자아통제력의 수준이 한 사람의 일생동안에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Polakowski의 연구는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대상자의 자아통제력 수준을 10세, 14세, 16세, 18세, 21세, 24세 모두 6회에 걸쳐 14년간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6회에 걸친 자아통제력간의 상관계수는 .6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Polakowski의 연구는 Gottfredson과 Hirschi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어렸을 때에 형성된 자아통제력은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ottfredson과 Hirschi가 특히 관심을 두었던 사항은 자아통제력이 낮은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징후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이들은 대략 6가지 징후를 제안하였다. 첫번째 징후는 장기적 목표보다는 목전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이다. 자아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먼 장래를 생각하기보다 눈앞의 상황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두번째 징후는 복잡한 일을 피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자기만족을 구하려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징후는 신중하지 못하고 모험을 즐긴다는 것이며, 네번째는 정신적인 활동이나 지적인 활동보다는 육체적 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이며, 다섯번째 징후는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사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냉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Gottfredson과 Hirschi가 자아통제력이 낮은 사람의 징후로 생각했던 여섯 번째 징후는 이들은 좌절감을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부족하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비행이나 범죄의 속성에 관한 Gottfredson과 Hirschi의 인식은 매우 실질적인 것이었다. 지금까지 범죄속성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범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규범적 정의(normative definition)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사회규범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인식하였고 반면에 상대적 정의(reactive definition)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범죄"란 실재하지 않으며 단지 외부에 의해 그렇게 규정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규범

적 정의와 상대적 정의의 논쟁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유용한 논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범죄라고 생각하는 행위들의 공통성을 밝히지는 못하였다(Orcutt, 1983). 이에 대해서 Gottfredson과 Hirschi는 우리가 범죄라고 생각하는 행위에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속성은 그것이 "적은 노력을 들이고 목전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파악하였다. 예컨대, 폭행과 절도는 범죄유형면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폭행은 자신의 분노를 가장 쉽고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위이며 절도 역시 많은 노력없이도 자기가 원하는 재물을 차지할 수 있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모두 "적은 노력으로 목적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행위"라는 동일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Gottfredson과 Hirschi는 자아통제력이 낮은 사람이 범죄를 지속하는 경향이 큰 것은 자명하다고 보았다. 자아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앞서 살펴 보았듯이 충동적이고, 간편한 것을 좋아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활동을 싫어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문제를 대화로서보다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크다.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사업종목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해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더욱 풍족한 미래를 위해 현재 다소의 사업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소비하지 않고 재투자해야 하는 등 현재의 만족을 희생하고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이다. 자아통제력이 낮아 모든 일을 손쉽게 즉각적으로 처리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노력과 시간을 인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성향의 사람은 힘들이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 즉 절도, 사기, 횡령을 저지를 가능성이 자아통제력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클 것이다. 그리고 Polakowski의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아통제력이란 그 사람의 생애에 대체로 변하지 않고 어렸을 때의 상태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아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개인성향의 이러

한 불변성으로 인하여 단순히 한번의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범과 같은 지속적인 범죄에 빠져들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Gottfredson과 Hirschi는 비행이나 범죄의 발전추세를 다음과 같이 시사하였다. 먼저 이들은 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해당청소년의 자아통제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그리고 자아통제력의 수준은 대체로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은 성장하면서 계속해 일탈행위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비행발전경로에 대한 Gottfredson과 Hirschi의 견해는 일반화경향이었다. 어느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유혹을 뿌리치고 그 분야에 필요한 능력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Gottfredson과 Hirschi는 비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컨대, 강도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절도나 강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강도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Gottfredson과 Hirschi는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아통제력이 약한 경우들인데 이들이 눈앞의 이익을 물리치고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Gottfredson과 Hirschi는 비행청소년들의 발전추세는 특정범죄를 반복하는 전문화경향보다는 기회가 닿는대로 어떤 비행이나 닥치는대로 저지르는 일반화경향이 보다 보편적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2. 주요개념의 측정
 - 1) 발전경향의 원인분석
 - 2) 다양성의 설명모델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III. 연구방법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모집단차별론과 상황의존론을 중심으로 비행유형의 발전형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론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분석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청소년비행의 발전경향과 비행유형 다양성으로 나누어서 주요개념(key concepts)의 측정방법을 서술하고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중다전망적 패널조사설계(multi point prospective panel survey design)하에 2003년 기준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향후 6년간 동일표본 반복 추적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1-4차년도 자료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는 2003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 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에 의해 표본으로 뽑은 3,697명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3년 10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부모의 동의를 얻어 청소년들과 부모 모두를 성공적으로 조사한 경우는 3,697명의 93.3%인 3,449명이었고 이 가운데 남학생은 1,725명이고 여학생은 1,724명이었다.

2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구축된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적조

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 3,449명의 92.4%인 3,188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3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구축된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5년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 3,449명의 90.6%인 3,12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4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구축된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 3,449명의 90.5%인 3,121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보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력, 가구수입 등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를 측정한 자료들의 경우, 청소년들이 부모의 정확한 학력, 정확한 가구수입 등을 알지 못해서 측정의 오류가 많았던 반면,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부모의 학력, 가구수입 등을 청소년들에게 묻지 않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직접 측정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표 III-1> 중2 패널 2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조사대상 패널수 ¹⁾	조사가능 패널수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대상패널수 대비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가능패널수 대비 조사성공 사례수(%)
서울특별시	587	573	528	89.9%	92.1%
인천광역시	199	196	185	93.0%	94.4%
경기도	773	765	675	87.3%	88.2%
강원도	123	123	103	83.7%	83.7%
대전광역시	102	102	99	97.1%	97.1%
충청도	255	254	245	96.1%	96.5%
광주광역시	137	136	132	96.4%	97.1%
전라도	249	247	231	92.8%	93.5%
부산광역시	255	253	246	96.5%	97.2%
울산광역시	106	106	105	99.1%	99.1%
대구광역시	212	212	201	94.8%	94.8%
경상도	451	450	438	97.1%	97.3%
합계	3,449	3,417	3,188	92.4%	93.3%

1) 전학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지역별 조사대상 패널수 변동

-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사례수(3,188명)의 비율: 92.4%
- ※ 조사가능 패널수(3,417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 사례수(3,188명)의 비율: 93.3%
-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3,106명)의 비율: 90.1%
- ※ 조사가능 패널수(3,417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3,106명)의 비율: 90.9%

〈표 III-2〉 중2 패널 3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조사대상 패널수 ¹⁾	조사가능 패널수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대상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조사가능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서울특별시	600	584	520	86.7%	89.0%
인천광역시	198	191	175	88.4%	91.6%
경기도	775	761	685	88.4%	90.0%
강원도	121	119	107	88.4%	89.9%
대전광역시	102	101	97	95.1%	96.0%
충청도	249	247	237	95.2%	96.0%
광주광역시	138	137	124	89.9%	90.5%
전라도	241	238	221	91.7%	92.9%
부산광역시	254	250	234	92.1%	93.6%
울산광역시	108	107	105	97.2%	98.1%
대구광역시	215	214	190	88.4%	88.8%
경상도	446	442	429	96.2%	97.1%
제주도	2	2	1	50.0%	50.0%
합계	3,449	3,393	3,125	90.6%	92.1%

1) 전학, 이사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지역별 조사대상 패널수 변동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사례수(3,125명)의 비율: 90.6%

※ 조사가능 패널수(3,393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사례수(3,125명)의 비율: 92.1%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사례수(3,081명)의 비율: 89.3%

※ 조사가능 패널수(3,393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사례수(3,081명)의 비율: 90.8%

<표 III-3> 중2 패널 4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조사대상 패널수 ¹⁾	조사가능 패널수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대상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조사가능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서울특별시	597	573	503	84.3%	87.8%
인천광역시	199	190	174	87.4%	91.6%
경기도	784	762	689	87.9%	90.4%
강원도	121	120	114	94.2%	95.0%
대전광역시	100	96	94	94.0%	97.9%
충청도	248	242	237	95.6%	97.9%
광주광역시	136	134	129	94.9%	96.3%
전라도	240	234	220	91.7%	94.0%
부산광역시	257	252	235	91.4%	93.3%
울산광역시	108	105	104	96.3%	99.0%
대구광역시	216	213	194	89.8%	91.1%
경상도	441	435	426	96.6%	97.9%
제주도	2	2	2	100.0%	100.0%
합계	3,449	3,358	3,121	90.5%	92.9%

1) 전학, 이사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지역별 조사대상 패널수 변동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 사례수(3,121명)의 비율 : 90.5%

※ 조사가능 패널수(3,358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 사례수(3,121명)의 비율 : 92.9%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3,077명)의 비율 : 89.2%

※ 조사가능 패널수(3,358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3,077명)의 비율 : 91.6%

2. 주요개념의 측정

1) 청소년비행 발전경향

모집단차별론에서 주요개념으로 설정했던 것은 사람들마다 서로 이질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개인의 범죄성향 즉 각자의 생애에 걸쳐 대체로 불변하는 개인성향이였다. 이러한 모집단차별성이 형성되는 배경과 관련하여 Gottfredson과 Hirschi는 가정훈육과 같은 초기사회화 과정을 중시하였다. 즉 어렸을 때에 보호자가 늘 행동을 관찰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이를 인식시켜주고 잘못된 행동이 거듭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징계를 해야지만 사람들은 적절한 자아통제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상황의존론에서 중요시하였던 개념은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의 변화된 상황 즉 상황의존성이였다. 상황의존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사회학습이론가들은 범죄이후의 상호작용관계상의 변화를 중요한 상황변화로 생각했으며, 낙인이론가들은 낙인의 경험, 주위사람들의 부정적 기대나 반응을 중요한 상황변화로 생각했고, 사회통제이론가들은 범죄이후에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는 현상을 중요한 상황변화로 생각하였다.

본 연구는 모집단차별성의 형성배경과 개인의 심리적 징후 두가지 측면에서 모집단차별성을 측정하였다. 모집단차별성을 형성하는 즉 개인의 기본성향을 형성하는 배경으로 고려한 항목은 가족구조,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수준, 갈등가족, 양육방식이다. 그 중에서 가족구조는 이항변수로 측정하였다. 가족구조에서 양친이 있으면 양친가족으로 분류하였고('1' 로 코딩) 그렇지 않으면 결손가족으로 분류하였다('0' 으로 코딩). 가구주 교육수준은 서열변수로 측정하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이하이면 '1' 로 분류하였고, 중학교 졸업이면 '2' 로, 고등학교 졸업이면 '3' 으로, 전문대 졸업이면 '4' 로, 대학교 졸업이면 '5' 로,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면 '6' 으로 분류하였다. 가구주 직업수준의 경우도 서열변수로 측정하였다. 가구주의 직업수준이 전문직이면 '1' 로, 사무직이면 '2' 로, 서

비스직이면 ‘3’으로, 판매종사직이면 ‘4’로, 숙련종사직이면 ‘5’로, 기능직이면 ‘6’으로, 조립종사직이면 ‘7’로, 단순노무직이나 무직이면 ‘8’로 분류하였다. 갈등가족은 개인의 기본성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분위기를 반영한 항목이다. 갈등가족은 5점 척도로 측정한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와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의 2문항을 합산한 복합척도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갈등가족 항목의 높은 점수는 해당 청소년이 갈등이 빈번한 가족환경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뜻한다. 양육방식의 경우도 5점 척도로 측정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의 2문항을 합산한 복합척도로 측정하였다. 양육방식 항목의 높은 점수는 낮은 점수를 받은 청소년에 비해 보다 강압적인 양육방식에 의해 성장했다는 사실을 뜻한다.

개인의 심리적 징후는 자아개념과 충동성의 2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자아개념은 5점 척도로 측정한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의 6개 문항을 합산한 복합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방향을 수정하여 자아개념에서 높은 점수로 분류된 청소년일수록 보다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했다는 것을 뜻한다. 충동성은 5점 척도로 측정한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의 3문항을 합산한 복합척도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충동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청소년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상황의존성은 비행친구, 낙인효과, 부모애착, 부모감시, 학교애착, 친구애착, 비공식통제 등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비행친구는 사회학습이론가들의

주장을 반영한 항목이다. 비행친구는 친구들 중에서 “술마시기”, “담배 피우기”, “무단결석”,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뺏뜯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를 한 친구들의 수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낙인효과는 낙인이론가들의 주장을 반영한 항목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한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주위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의 2문항을 합산한 복합척도로 측정하였다. 부모애착, 부모감시, 학교애착, 친구애착, 비공식통제는 사회통제이론가들의 주장을 반영한 항목들이다. 부모애착은 5점 척도로 측정한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의 6개 문항을 합산한 복합척도로 측정하였다. 부모감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측정한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의 4개 문항을 합산한 복합척도로 측정하였다. 학교애착은 5점 척도로 측정한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의 3개 문항을 합산한 복합척도로 측정하였다. 친구애착의 경우도 5점 척도로 측정한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의 4개 문항을 합산한 복합척도로 측정하였다. 비공식통제는 5점 척도로 측정한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몹시 비난하게 될 것이다” 와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창피함을 당할 것이다” 의 2개 문항을 합산한 복합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 즉 긴장을 비행유형의 발전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적 인과요인으로 부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청소년들이 겪는 긴장은 요인분석결과를 참조하여 자아긴장, 부모긴장, 학업긴장, 친구긴장의 4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자아긴장은 본인의 외모나 가정형편에 기인하여 겪는 긴장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자아긴장은 5점 척도로 측정한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멋있는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의 6개 문항을 합산한 복합척도로 측정하였다. 부모긴장은 부모로 기인한 긴장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역시 5점 척도로 측정한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의 4개 문항을 합산한 복합척도로 측정하였다. 학업긴장은 학업문제에 기인한 긴장수준을 반영한 항목이다. 학업긴장은 5점 척도로 측정한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의 4개 문항을 합산한 복합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친구긴장으로 친구문제에 의해 유발된 긴장수준을 반영한 항목으로,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의 3개 문항을 합산한 복합척도로 측정하였다.

2) 비행유형 다양성

여기에서는 비행유형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

화과정을 이론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부모폭력학습’ 변인은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의 네 가지 진술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리커어트식 5점척도로 측정된 결과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의 여섯 진술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리커어트식 5점척도로 측정된 결과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의 네 가지 진술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리커어트식 5점척도로 측정된 결과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나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해가지 않는 편이다.”의 여섯 진술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리커어트식 5점척도로 측정된 결과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의 세 진술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리커어트식 5점척도로 측정된 결과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친구와의 유대’ 를 측정하기 위해서,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나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학교에서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나는 나에 대한 친구들의 평을 중요시한다” 의 세 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리커어트식 5점척도로 측정된 다음, 첫 번째 문항의 순서를 바꾼 다음 세 문항의 응답결과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의 여섯 진술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리커어트식 5점척도로 측정된 결과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단 이 중에서 역방향으로 측정된 문항들은 순서를 바꾸어서 합산하였다.

다음으로 ‘공부압력’ 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님의 공부에 대한 기대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나는 부모님이 바라는 대학이나 직장에 갈 수 있다,” “나는 지금 공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의 세 가지 진술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리커어트식 5점척도로 측정된 결과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스트레스’ 는 “1)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2)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4)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5)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6)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7)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8)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9)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0)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1)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2)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

레스를 받는다 13)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4)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5) 멋있는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6)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7)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의 17개 진술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리커어트식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이 응답들을 모두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SES'는 부친의 학력과 가구소득을 각각 표준화한 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표 III-4>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측정항목들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성격을 살펴본 것이다.

성별의 경우에 전체 조사대상자 3,449명 중에서 여자 청소년은 1,724명이고 남자는 1,725명으로 남녀의 비율이 균등하다.

가족구조,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수준, 갈등가족, 양육방식은 본 연구에서 모집단차별성 형성 배경요인으로 고려한 항목들이며 자아개념과 충동성은 개인의 심리적 개인성향을 측정한 항목들이다. 가족구조의 경우에 227명(6.6%)이 친아버지만 계신다든지, 친어머니만 계신다든지, 친아버지와 양어머니, 친어머니와 양아버지, 양아버지와 양어머니, 양아버지만 계신다든지, 양어머니만 계신다든지, 두분 모두 안 계신다 등의 결손가족 출신이며 3,222명(93.4%)이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있는 양친가족 출신이다. 가구주 교육수준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이 1,481명(42.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1,025명(8.8%), 중학교 졸업이 274명(7.9%), 대학원 이상이 236명(6.8%)이고,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은 129명(3.7%)를 차지한다. 가구주 직업수준의 경우에는 사무직 종사자가 834명(24.2%)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판매직 종사자(577명, 16.7%), 조립직 종사자(516명, 15.0%), 기능직 종사자(482명, 14.0%) 등의 순이다. 복합척도로 측정된

갈등가족은 모집단차별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분위기를 반영한 항목이다. 최소값 2점에서 최대값 10점까지의 분포에서 갈등가족의 평균은 3.7점으로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을 때리는 등의 갈등상태에 있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방식의 경우도 최소값 2점에서 최대값 10점까지의 분포에서 평균이 3.5점이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있는 등 강압적 방식으로 양육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개념은 6점에서 30점까지의 분포에서 평균이 19.0점이다. 5점 척도로 측정된 6개 문항에서 중앙값이 18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조사대상자들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하여 중간수준의 평가를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동성은 최소값 3점부터 최대값 15점까지의 분포에서 평균이 7.5점이다. 5점 척도로 측정된 3개 문항의 중앙값은 9점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충동성을 중간단계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행친구, 낙인효과, 부모애착, 부모감시, 학교애착, 친구애착, 비공식통제, 자아긴장, 부모긴장, 학업긴장, 친구긴장 등의 항목은 상황의존론에서 중요시하는 비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의 변화된 상황 즉 상황의존성을 반영한 것이다. 비행친구는 5가지 유형의 비행을 저지른 친구들의 수를 합산한 항목으로 최소값 0명에서 최대값 120명까지 분포한다. 비행친구의 평균은 3.0명이며 표준편차는 8.1명이다. 따라서 비행친구가 적은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반면에 비행친구가 많은 경우는 전자에 비해 희소한 비대칭적 분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낙인효과는 최소값 2점에서 최대값 10점까지의 분포에서 평균이 3.4점이다. 5점 척도로 측정된 2개 문항의 중앙값은 6점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이 주위사람들로부터 낙인효과를 경험하는 경향은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애착의 평균은 최소값 6점에서 최대값 30점의 분포에서 20.0점이다. 5점 척도로 측정된 6개 문항의 중앙값은 18점이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들과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전체적으

<표 III-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측정항목		빈도	백분율	비고
성별	여자	1,724	50.0	인구학적 요인
	남자	1,725	50.0	
가족구조	결손가족	227	6.6	모집단차별성 (형성배경)
	양친가족	3,222	93.4	
가구주 교육수준	초등학교	129	3.7	모집단차별성 (형성배경)
	중학교	274	7.9	
	고등학교	1,481	42.9	
	전문대	304	8.8	
	대학교	1,025	29.7	
	대학원이상	236	6.8	
가구주 직업수준	전문직	405	11.7	모집단차별성 (형성배경)
	사무직	834	24.2	
	서비스직	192	5.6	
	판매종사직	577	16.7	
	숙련종사직	145	4.2	
	기능직	482	14.0	
	조립종사직	516	15.0	
	단순노무직	298	8.6	
합계		3,449	100.0	
측정항목	평균	표준편차		
갈등가족	3.7	1.8	모집단차별성 (형성배경)	
양육방식	3.5	1.8	모집단차별성 (형성배경)	
자아개념	19.0	3.7	모집단차별성 (심리징후)	
충동성	7.5	2.7	모집단차별성 (심리징후)	
비행친구	3.0	8.1	상황의존성(사회학습)	
낙인효과	3.4	1.6	상황의존성(낙인이론)	
부모애착	20.1	4.7	상황의존성(사회통제)	
부모통제	12.9	3.5	상황의존성(사회통제)	
학교애착	7.4	2.5	상황의존성(사회통제)	
친구애착	16.2	2.6	상황의존성(사회통제)	
비공식통제	6.1	2.0	상황의존성(사회통제)	
자아긴장	15.5	5.1	상황의존성(긴장이론)	
부모긴장	11.3	3.7	상황의존성(긴장이론)	
학업긴장	12.6	3.4	상황의존성(긴장이론)	
친구긴장	6.3	2.5	상황의존성(긴장이론)	

로 다소 강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통제의 평균은 최소값 4점에서 최대값 20점까지의 분포에서 12.9점이다. 중앙값이 12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조사대상자들은 전체적으로 부모통제의 수준을 다소 강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애착의 경우에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은 7.4점으로 최소값 3점과 최대값 15점의 분포에서 중앙값 9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친구애착에서는 최소값 4점에서 최대값 20점의 분포에서 16.2점이다. 중앙값이 12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조사대상자들은 친구와의 애착수준을 대체로 매우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의 평균은 모두 중앙값을 상회하지만 학교애착의 경우는 중앙값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은 부모나 친구와는 중간수준 이상의 애착관계를 형성하지만 학교나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위사람들로부터의 비공식통제를 평가하는 수준은 최소값 2점에서 최대값 10점의 분포에서 6.1점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이 전체적으로 주위사람들의 비공식통제를 중간수준에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긴장은 최소값 6점과 최대값 30점의 분포에서 평균 15.5점이다. 중앙값이 18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의 외모나 가정형편으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 수준이 대체로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값이 12점인 부모긴장과 학업긴장의 경우에 부모긴장의 평균은 11.3점 그리고 학업긴장은 12.6점으로 조사대상자들은 전체적으로 부모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중간수준에서 평가하는 경향이다. 친구긴장은 최소값 3점과 최대값 15점의 분포에서 평균이 6.3점이다. 5점 척도로 측정된 3개 문항의 중앙값이 9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조사대상자들은 친구로부터 겪는 스트레스를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비행의 발생추세
2. 청소년비행의 발전경향
3. 비행유형의 전문화와 그 설명모델

IV. 연구결과

1. 청소년비행의 발생추세 : 공식통계와 패널자료의 비교

<표 IV-1>은 비행유형의 발전형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최근 청소년비행의 추세를 살펴본 것이다. 공식통계자료를 통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청소년비행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은 1997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행청소년은 1997년에 164,182명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많았으며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86,014명으로 감소하여 1997년에 비해 50% 가량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전체범죄에서 청소년비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7년에는 7.8%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3.6%로 감소하였다.

비행청소년의 수가 감소했다고 청소년비행문제가 완화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비행청소년의 수는 인구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인구는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 12-19세의 청소년인구는 1996년에 약 630만 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약 519만 명으로 감소하여 10년 동안에 20% 가량이 줄었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의 감소추세는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표 IV-1>에서 청소년비행율은 인구규모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청소년인구 10만명당 비행청소년의 수를 계산한 것이다. 청소년비행율의 경우도 최근에 들어 감소하는 추세이다. 청소년비행율은 1997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0년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200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 2522.2명, 2002년에는 2348.8명, 2003년에 2017.9명, 2004년에 1,804.4명, 2005년에 1,655.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비행문제는 최근에 들면서 안정화하는 경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 청소년비행 발생현황

구분 연도	총범죄	청소년범죄	청소년인구 (12-19세)	구성비	청소년범죄율 (10만명당)
1996	2,018,296	146,986	6,296,918	7.3	2334.3
1997	2,117,759	164,182	6,211,001	7.8	2643.4
1998	2,341,431	161,277	6,093,609	6.9	2646.7
1999	2,400,485	150,821	5,924,716	6.3	2545.6
2000	2,329,134	151,176	5,711,899	6.5	2646.7
2001	2,426,050	138,030	5,472,564	5.7	2522.2
2002	2,416,711	123,921	5,275,981	8.1	2348.8
2003	2,441,267	104,158	5,161,636	4.3	2017.9
2004	2,606,718	92,976	5,152,787	3.6	1804.4
2005	2,384,613	86,014	5,194,546	3.6	1655.9

자료 : 청소년백서(재구성)

청소년비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표 IV-2〉 참조), 2003년 이후로 획기적 반전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의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폭력범이었다. 1996년에 폭력범의 비율이 36.2%, 재산범이 23.2%, 강력범이 3.0%, 교통사범이 26.8%, 기타가 10.8%와 같이 지금까지 청소년비행의 유형 중에서 폭력범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1996년 이후에도 폭력범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의 폭력성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로 획기적 반전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2003년의 경우에 재산범의 비율이 34.5%로 가장 높고 폭력범(30.0%), 교통사범(25.0%), 강력범(2.5%)의 순이다. 이후 2004년과 2005년에도 재산범의 비율은 34.9%와 37.8%인 반면에 폭력범은 32.2%와 32.1%로 폭력범에 비해 재산범의 비율이 지속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직도 폭력범이 30%를 상회하여 청소년 비행의 폭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청소년비행에 관한 공식통계자료가 보존된 이래로 폭력범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청소년범죄가 점차 비폭력화되어가는 긍정적 현상으로 진단할 수 있다. 폭력범에서처럼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지는 않지만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강력범의 경우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다. 1996년에서 1999년까지 강력범의 비율은 3.0% 이상이었지만 2002년에 2.1%, 2005년 2.6%로 줄어들어 강력범의 경우도 최근에 들어 낮아지는 경향이다.

폭력범과 강력범이 감소하는 반면에 재산범의 비율은 2001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다. 2001년의 경우에 재산범의 비율은 24.5%이었으나, 2002년에는 30.8%, 2003년에는 34.5%, 2004년에 34.9%, 2005년에 37.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산범을 범죄명으로 세분화했을 때에 최근에 들어 절도범죄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절도범죄는 2001년에는 18.8%에 불과했으나 이후 계속해 늘어나 2005년에는 전체 청소년범죄의 30.3%를 차지한다.

더욱 두드러진 현상은 사기범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사기범은 1997년 이전까지 청소년비행 중에서 2% 미만이었고 1998년, 1999년, 2000년까지만 하여도 2%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후 증가하여 2001년에 4.8%, 2002년에 8.4%, 2003년에는 10.3%로 현저히 늘었으며 2004년과 2005년에는 감소하여 7.8%와 6.0%이지만 이전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청소년비행에서 사기가 증가한 이유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질러지는 부정한 전자상거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청소년비행 실무가들에 의하면 최근에 들어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광고하고 구매자가 대금을 온라인입금하면 이를 찾아 쓰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공식통계는 사기유형에 대한 구체적 분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다. 만일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사기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라면 이러한 청소년비행은 앞으로도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표 IV-2> 청소년비행 유형별 현황

구분 \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146,986 (100)	164,182 (100)	161,277 (100)	150,821 (100)	151,176 (100)	138,030 (100)	123,921 (100)	104,158 (100)	92,976 (100)	86,014 (100)	
강력범	소계	4,566 (3.0)	5,653 (3.4)	6,134 (3.8)	5,053 (3.4)	4,421 (2.9)	3,479 (2.5)	2,699 (2.1)	2,868 (2.8)	2,877 (3.1)	2,273 (2.6)
	살인	69 (0.0)	79 (0.0)	65 (0.0)	71 (0.0)	45 (0.0)	49 (0.0)	60 (0.0)	19 (0.0)	25 (0.0)	35 (0.0)
	강도	2,840 (1.9)	3,651 (2.2)	4,273 (2.6)	3,102 (2.2)	2,691 (1.8)	1,885 (1.4)	1,375 (1.1)	1,550 (1.5)	1,218 (1.3)	826 (1.0)
	강간	1,599 (1.1)	1,840 (1.1)	1,703 (1.1)	1,709 (1.1)	1,515 (1.0)	1,371 (1.0)	1,122 (0.9)	1,192 (1.2)	1,501 (1.6)	1,230 (1.4)
	방화	58 (0.0)	83 (0.1)	93 (0.1)	171 (1.1)	170 (0.1)	174 (0.1)	142 (0.1)	107 (0.1)	133 (0.1)	182 (0.2)
폭력범	소계	53,165 (36.2)	62,218 (37.9)	57,080 (35.4)	56,757 (37.6)	56,711 (37.5)	51,095 (37.1)	39,911 (32.1)	31,532 (30.3)	29,940 (32.2)	27,647 (32.1)
	폭행, 상해	52,359 (35.6)	61,383 (37.4)	56,461 (35.0)	56,186 (37.3)	56,125 (37.1)	50,598 (36.7)	39,465 (31.8)	31,199 (30.0)	29,561 (31.8)	27,187 (31.6)
	공갈	769 (0.6)	790 (0.5)	557 (0.4)	517 (0.3)	488 (0.3)	420 (0.3)	386 (0.3)	272 (0.3)	327 (0.3)	387 (0.4)
	기타	37 (0.0)	45 (0.0)	62 (0.0)	54 (0.0)	98 (0.1)	77 (0.1)	60 (0.0)	61 (0.0)	52 (0.0)	73 (0.1)
재산범	소계	34,044 (23.2)	39,605 (24.1)	45,561 (28.3)	36,612 (24.3)	39,834 (26.3)	33,822 (24.5)	37,981 (30.8)	36,049 (34.5)	32,487 (34.9)	32,472 (37.8)
	절도	29,936 (20.4)	35,177 (21.4)	39,894 (24.7)	31,162 (20.7)	34,236 (22.6)	25,926 (18.8)	26,484 (21.4)	24,208 (23.2)	24,215 (26.0)	26,053 (30.3)
	횡령/배임	955 (0.7)	993 (0.6)	887 (0.5)	788 (0.5)	1,048 (0.7)	981 (0.7)	866 (0.7)	840 (0.8)	765 (0.8)	864 (1.0)
	장물	757 (0.5)	741 (0.5)	819 (0.5)	731 (0.5)	555 (0.4)	343 (0.2)	308 (0.3)	246 (0.2)	283 (0.3)	352 (0.4)
	사기	2,396 (1.6)	2,694 (1.6)	3,961 (2.6)	3,931 (2.6)	3,995 (2.6)	6,572 (4.8)	10,323 (8.4)	10,755 (10.3)	7,224 (7.8)	5,203 (6.0)
교통사범	39,378 (26.8)	45,622 (27.8)	41,665 (25.8)	40,874 (27.1)	42,537 (28.2)	41,869 (30.3)	36,006 (29.1)	26,022 (25.0)	22,452 (24.1)	18,646 (21.7)	
기 타	15,833 (10.8)	11,084 (6.8)	10,837 (6.7)	11,525 (7.6)	7,673 (5.1)	7,765 (5.6)	7,324 (5.9)	7,687 (7.4)	5,220 (5.6)	4,976 (5.8)	

자료: 청소년백서(재구성)

청소년비행의 규모가 감소하고 비폭력화되는 경향은 바람직한 경향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재범현상은 그렇지 못하다. 청소년비행을 초범과 재범으로 구분하였을 때에(<표 IV-3> 참조) 재범이상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과거

1990년 초기만 하여도 청소년비행에서 재범 이상의 비율은 20% 내외에 불과하였다. 1996년의 경우에도 초범의 비율은 72.7%이고 재범 이상의 비율은 27.3%이었다. 그러나 이후 계속해 증가해 1997년에 29.1%, 1998년에 33.6%로 증가하고 1999년 이후로는 35% 내외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004년과 2005년의 경우에 재범이상의 비율은 39.2%와 37.7%로 나타나 청소년비행을 저지른 10명 중에서 4명가량이 과거에 한번 이상 경찰을 비롯한 청소년사법기관에 의해 처리되었던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들이다. 재범 이상의 청소년을 전과회수로 세분화하면 청소년비행의 상습화 현상을 더욱 확연히 알 수 있다. 1996년의 경우에 과거 범죄경력이 한번이었던 1범의 비율은 14.7%이었고, 2범은 6.4%, 3범은 3.2%, 4범 이상은 3.0%이었다. 그러나 2005년의 경우에 1범의 비율은 13.8%, 2범은 6.8%, 3범은 4.0%, 4범 이상은 13.2% 등으로 4범 이상의 만성범죄자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1996년에 3.0%에 불과하던 4범 이상의 비율이 2005년에는 13.2%로 3배 가량 증가하였다. 따라서 최근 들어 청소년의 재범현상은 전체 청소년비행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4범 이상의 비율이 불과 10년 만에 3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청소년비행의 상습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 청소년비행의 전과별 현황

연도	계	초 범	전 과			
			1범	2범	3범	4범이상
1996	133,198 (100)	96,851 (72.7)	19,643 (14.7)	8,508 (6.4)	4,207 (3.2)	3,989 (3.0)
1997	146,624 (100)	103,958 (70.9)	22,067 (15.1)	10,148 (6.9)	5,168 (3.5)	5,283 (3.6)
1998	145,174 (100)	96,407 (66.4)	23,305 (16.1)	11,538 (7.9)	6,356 (4.4)	7,568 (5.2)
1999	140,351 (100)	89,718 (63.9)	23,071 (16.4)	11,672 (8.3)	6,830 (4.9)	9,060 (6.5)
2000	140,893 (100)	90,875 (64.5)	22,608 (16.0)	11,311 (8.0)	6,536 (4.5)	9,563 (7.0)
2001	128,430 (100)	80,942 (63.0)	20,942 (16.3)	10,342 (8.0)	6,218 (4.8)	9,986 (7.7)
2002	112,812 (100)	71,662 (63.5)	18,326 (16.2)	9,036 (8.2)	5,046 (4.5)	8,742 (7.7)
2003	94,038 (100)	61,025 (64.9)	14,751 (15.7)	7,263 (7.7)	4,106 (4.4)	6,893 (7.3)
2004	72,770 (100)	44,267 (60.8)	11,187 (15.4)	5,227 (7.2)	3,138 (4.3)	8,951 (12.3)
2005	67,478 (100)	42,017 (62.3)	9,307 (13.8)	4,601 (6.8)	2,672 (4.0)	8,881 (13.2)

자료 : 범죄백서(재구성)

최근에 들어 청소년비행의 상습화가 심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공식 통계자료는 집락정보(aggregate data)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습적인 청소년비행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하는 양식인지 아니면 완화되는 양식인지 혹은 상습적 청소년비행이 전문화 경로를 따르는지 아니면 일반화 경로를 따르는지 즉 청소년비행의 발전형태를 분석할 수 없다. KYPS 자료는 동일 조사대상자를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동태적 자료이므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향후 발전형태를 판별할 수 있다. KYPS 자료에서도 비행발생은 지위

비행의 경우는 다소 증가했지만 최근에 들수록 청소년비행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다. <표 IV-4>는 연차별로 청소년비행의 발생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표 IV-4>에서 알 수 있듯이 담배, 술,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 등의 지위비행은 최근 들어 증가추세이다. 흡연의 경우에 1차년도에 조사대상자의 13.3%가 지난 1년 동안에 흡연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2차년도에는 10.5%로 감소했지만 이후 3차년도와 4차년도에는 11.5%와 13.7%로 증가하고 있다. 음주의 경우도 1차년도와 2차년도에 30.7%와 29.0%이었으나 3차년도에는 36.5%, 4차년도에는 46.0%로 증가하고 있다. 무단결석은 1차년도에는 4.8%이었지만 2차년도에 6.0%로 증가하고, 3차년도와 4차년도는 조사대상자의 5.5% 정도가 지난 1년 동안에 무단결석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출의 경우는 다른 지위비행과 달리 감소하는 경향이다. 1차년도에 가출비율은 4.0%이었으나, 2차년도에는 3.8%, 3차년도에는 3.3%, 4차년도에는 3.0%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성관계의 경우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는 1.1%와 0.9%이었지만, 3차년도와 4차년도에는 1.4%와 2.2%로 증가추세이다. 따라서 지위비행의 경우는 가출을 제외하고 최근에 들수록 다소 증가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식통계자료와 마찬가지로 KYPS 자료에서도 폭력비행이나 재산비행과 같이 타인에게 신체적 해악이나 재산상 손실을 미치는 비행의 발생률은 최근에 들어 감소추세이다. 폭력비행의 경우에 ‘심하게 때리기’의 비율은 1차년도에는 9.0%이었으나, 2차년도에는 4.6%, 3차년도에는 2.8%, 4차년도에는 2.2%로 감소추세이다. ‘패싸움’도 연차별로 5.4%, 2.1%, 1.2%, 1.3% 등으로 감소한다. 그 외 ‘조롱하기’, ‘협박하기’, ‘왕따시키기’도 연차별로 줄어들고 있다. 재산비행의 경우도 ‘돈/물건 뺏기’가 1차년도의 발생율이 5.5%였으나, 2차년도에는 3.4%, 3차년도에는 1.4%, 4차년도에는 0.7%로 감소하였고 ‘돈/물건 훔치기’는 1차년도의 6.9%에서, 2차년도에는 3.3%, 3차년도에는 1.8%, 4차년도에는 1.5%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원조교제와 성희롱과 같은 성비행은 발생한 사례가 조사대상자 전체의 0.1%에서 0.3%에 불과하여 연차별 비교가 무의미한 수

준이다.

<표 IV-4> KYPs 연차별 청소년비행의 발생현황

비행종류	비행유형	제1차년도	제2차년도	제3차년도	제4차년도
담배	지위비행	458 (13.3)	334 (10.5)	358 (11.5)	428 (13.7)
술	지위비행	1,057 (30.7)	925 (29.0)	1,140 (36.5)	1,404 (45.0)
무단결석	지위비행	167 (4.8)	191 (6.0)	172 (5.5)	171 (5.5)
가출	지위비행	139 (4.0)	121 (3.8)	103 (3.3)	94 (3.0)
성관계	지위비행	38 (1.1)	27 (0.9)	43 (1.4)	68 (2.2)
심하게 때리기	폭력비행	310 (9.0)	147 (4.6)	86 (2.8)	68 (2.2)
패싸움	폭력비행	187 (5.4)	68 (2.1)	36 (1.2)	41 (1.3)
조롱하기	폭력비행	512 (14.8)	199 (6.2)	132 (4.2)	99 (3.2)
협박하기	폭력비행	148 (4.3)	67 (2.1)	35 (1.1)	25 (0.8)
왕따시키기	폭력비행	489 (14.2)	112 (3.5)	65 (2.1)	40 (1.3)
돈/물건 뺏기	재산비행	189 (5.5)	108 (3.4)	43 (1.4)	21 (0.7)
돈/물건 훔치기	재산비행	239 (6.9)	104 (3.3)	57 (1.8)	47 (1.5)
원조교제	성비행	5 (0.1)	0 (0.0)	6 (0.2)	1 (0.0)
성희롱	성비행	11 (0.3)	10 (0.3)	7 (0.2)	3 (0.1)
응답인원		3,499 (100.0)	3,188 (100.0)	3,125 (100.0)	3,121 (100.0)

2. 청소년비행의 발전경향

1) 청소년비행의 발전경향

지금까지 공식통계자료와 연차별 KYPs 자료를 통하여 청소년비행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았다. 발생현황의 분석을 통하여 최근에 들수록 지위비행을 제외하고 범죄성 비행이 감소하는 경향이었지만 재범 또는 지속비행은 점차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유형의 동태적 분석으로 청소년비행의 발전경향을 분석한다.

<표 IV-5>는 전년도(5)의 비행유형과 차년도(6)의 비행유형을 상호비교하여 청소년비행의 전이분포를 살펴본 것이다⁶⁾.

우선, 비행발전에 지위비행이 디딤돌(steping stone)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년도(t)에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사례들 중에서 차년도(t+1)에 지위비행을 저지른 비율은 21.3%, 폭력비행의 비율은 1.5%, 재산비행의 비율은 0.4%,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을 함께 저지른 비율은 1.8%, 지위비행과 재산비행을 함께 저지른 비율은 0.2%,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을 함께 저지른 비율은 0.0%, 지위비행과 폭력비행 그리고 재산비행을 모두 저지른 비율은 0.4% 등으로 지위비행의 비율이 가장 높다. 즉 전년도에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경우에 차년도에 저지른 비행유형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지위비행이다. 그리고 전년도에 지위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 중에서 차년도에 또다시 지위비행을 저지른 비율은 58.1%로 급증하고,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을 저지른 비율도 4.8%로 늘어나고, 지위비행과 재산비행의 비율도 1.6%로 늘어나고, 지위비행과 폭력비행과 함께 재산비행을 저지른 비율

5) KYPs 비행유형 중에서 성비행(원조교제, 성희롱)은 이러한 유형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희소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6) <표 IV-5>는 전년도(t)에 특정유형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차년도(t+1)에 저지른 비행유형의 분포를 나타낸다. <표 IV-5>에서 전체 사례는 9,206건이다. 이는 1차년도와 2차년도, 2차년도와 3차년도, 3차년도와 4차년도에 상호비교의 대상이 되었던 즉 전이를 경험한 사례들을 합산한 것이다. <부록 1>은 1차년도와 2차년도, 2차년도와 3차년도, 3차년도와 4차년도에 있었던 비행유형의 전이를 상호비교한 결과를 제시한다.

도 1.3%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비행발전 단계는 초기에 술과 담배 등의 지위비행에서 시작했다가 이후 점차 폭력비행이나 재산비행으로 진행되는 경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 청소년비행의 전이분포

비행유형 (전년도, t)	비행유형(차년도, t+1)								
	무비행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지위·폭력	지위·재산	폭력·재산	지위·폭력·재산	소계
무비행	3,856 74.3	1,112 21.3	79 1.5	18 0.4	91 1.8	11 0.2	1 0.0	22 0.4	5,190 56.4
지위비행	767 33.4	1,336 58.1	17 0.7	3 0.1	110 4.8	36 1.6	1 0.0	30 1.3	2,300 25.0
폭력비행	334 63.7	104 20.0	43 8.2	1 0.2	30 5.7	2 0.4	2 0.4	8 1.5	524 5.7
재산비행	37 57.8	14 21.9	2 3.1	2 3.1	1 1.6	3 4.7	2 3.1	3 4.7	64 0.7
지위·폭력	164 26.5	270 43.7	21 3.4	1 0.2	123 19.9	17 2.8	1 0.2	21 3.4	618 6.7
지위·재산	29 20.0	60 41.4	2 1.4	4 2.8	13 9.0	20 13.8	1 0.7	16 11.0	145 1.6
폭력·재산	38 57.6	13 19.7	3 4.6	0 0.0	5 7.6	0 0.0	4 6.1	3 4.6	66 0.7
지위·폭력·재산	58 19.4	101 33.8	7 2.3	3 1.0	51 17.1	19 6.4	6 2.0	54 18.1	299 3.3
소계	5,283 57.4	3,010 32.7	174 1.9	32 0.4	424 4.6	108 1.2	18 0.2	157 1.7	9,206 100.00

두 번째, 비행청소년의 다양성을 주목할 수 있다. 전년도에 비행을 저질렀지만 차년도에 무비행 즉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는 63.7%, 전년도에 재산비행을 저지른 사례들 중에서 차년도에 무비행인 경우는 57.8%,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의 경우는 57.6% 등으로 과반수 이상이 차년도에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폭력비행이나 재산비행을 저질렀지만 차년도에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례가 과반수를 상회한다. 따라서 비록 폭력비행이나 재산비

행을 저질렀다고 모두 이들을 심각한 비행청소년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반수 이상의 비행청소년이 차년도에 더 이상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 청소년생활로 회귀함으로써 비행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한두번의 비행을 저지르며 이후는 그만 두는 단기 비행청소년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행에 빠져드는 장기 비행청소년과 같이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위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비행지속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위비행의 경우에 차년도에 비행을 그만두는 무비행율이 33.4%,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을 저질렀던 경우는 26.5%, 지위비행과 재산비행을 저지른 경우는 20.0%, 세가지 유형의 비행을 모두 저지른 경우의 무비행율은 19.4% 등으로 지위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차년도에 비행을 그만 두는 비율이 대체로 낮은 추세이다. 따라서 지위비행은 그 심각성은 경미하지만 상승성이 강하고 또한 폭력비행이나 재산비행을 저지르는 사례들은 대부분 지위비행을 함께 저지르는 경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일정 수준의 전문화 발전경로를 발견할 수 있다. 전년도에 지위비행을 저지른 사례들 중에서 차년도에 또다시 지위비행을 저지른 비율은 58.1%로 나타나 전년도와 차년도에 걸쳐 지위비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폭력비행에서도 차년도에 폭력비행을 반복한 경우는 8.2%로 무비행과 지위비행을 제외하고 차년도의 다른 비행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이다. 재산비행에서도 차년도에 또다시 재산비행을 저지른 경우는 3.1%, 지위비행과 재산비행을 저지른 경우는 4.7%, 재산비행을 포함하여 다른 비행을 저지른 경우가 4.7% 등으로 전년도에 저지른 비행유형과 차년도에 저지른 비행유형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외에도 전년도에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을 함께 저지른 사례들 중에서 차년도에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가 19.9%, 전년도에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을 함께 저지른 사례들이 차년도에 반복한 경우는 13.8%,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에서도 반복한 경우가 6.1%, 세가지 유형을 모두 저지른 사례들이 반복한 경우는 18.1% 등으로 반복한 경우의 비율이 다른 비행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비행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비행을 무작위로 저지르

지 않고 특정한 비행은 반복하는 전문화 발전경로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년도에 폭력비행을 저지른 사례들 중에서 차년도에 지위비행만을 저지른 경우가 20.0%로 가장 높고 또한 재산비행을 저지른 사례들 중에서도 차년도에 지위비행만을 저지른 경우가 21.9%로 가장 비율이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비행이 발전하는 과정에는 전문화 발전 경로뿐만 아니라 다른 비행유형으로의 전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전년도(t)에 저지른 비행유형과 차년도(t+1)에 저지른 비행유형을 비교하여 비행유형별로 청소년비행의 전이분포를 살펴보았다. 전이분포의 분석을 통하여 지위비행의 영향, 비행청소년의 이질적 구성, 비행발전경로의 전문화 추세 등을 파악하였지만 이러한 분석은 전년도와 차년도의 비행유형만을 고려하므로 이전연도(t-1)에 있었던 비행경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진 전기간에 걸친 청소년비행의 발전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간에 걸친 청소년비행의 발전양상을 분석했을 때에 그 종류는 522가지에 달할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부록 2>는 전체 522가지 중에서 조사대상자들의 0.1% 이상에서 나타난 청소년비행의 발전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부록 2>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가장 많았던 발전양상은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경우로 722명(20.9%)이다. 그 외에 빈번했던 발전양상은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가 4차년도에 들어 지위비행을 저지른 경우가 169명(4.9%), 1차년도와 2차연도에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가 3차년도와 4차년도에 지위비행을 저지른 경우가 144명(4.2%), 1차년도에 폭력비행을 저지르고 2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비행을 저지르는 않은 경우가 138명(4.0%),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지위비행만을 저지른 경우가 112명(3.2%) 등의 순이다.

<표 IV-6>은 조사기간 전기간에 걸친 522 종류의 발전양상을 크게 5가지로 유형화하여 청소년비행의 발전경향을 살펴본 것이다.

악화형은 청소년비행의 발전양태에서 가장 우려되는 현상으로 조사기간 전기간에 걸쳐서 과거보다 점차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는 유형이다. 1차년도에는 비행이 없었다가 2차년도에는 지위비행만을 저지르고 3차년도에는 폭력비행을 4차년도에는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을 함께 저지르는 경우와 같이 악화형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행의 종류도 많아지는 유형이다. 조사기간 중에 탈락하거나 분류에 부적합한 사례⁷⁾를 제외한 2,923명 중에서 악화형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47명으로 조사대상자 전체의 1.6%를 차지한다.

반면에 완화형은 조사기간에 걸쳐 과거에 비해 점차 경미한 비행을 저지르는 유형이다. 1차년도에는 지위비행을 포함하여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을 함께 저질렀다가, 2차년도에는 폭력비행만을, 3차년도에는 지위비행을, 그리고 4차년도에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와 같이 완화형은 비록 비행을 지속하지만 과거비행에 비해 차후비행이 경미한 것이거나 저지르는 비행의 종류가 감소하는 경우이다. 완화형의 발전경향을 보인 조사대상자는 1,568명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한다.

정체형은 조사기간에 걸쳐 과거비행과 차후비행이 유사한 유형이다.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지위비행만을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조사기간 전기간에 걸쳐 폭력비행만을 계속한 경우들이다. 정체형 발전경향을 보인 사례는 392명으로 조사대상자 전체의 13.4%를 차지한다.

병합형은 조사기간에 걸쳐 악화형과 완화형이 중첩된 유형이다. 예를 들어 1차년도에서 2차년도까지는 악화형이었다가, 2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는 완화형인 경우와 같이 병합형은 조사기간 동안에 비행의 심각성이나 비행의 종류가 증감을 반복한 경우이다.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병합형은 196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한다.

끝으로 무비행은 조사기간 동안에 비행을 한번도 저지르지 않은 유형이

7) 조사기간 중에 탈락한 사례는 2차년도에 261명, 3차년도에 324명, 4차년도에 328명이다. 또한 분류에 부적합한 사례는 3차년도까지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다가 4차년도에 들어 처음으로 비행을 저지른 것과 같이 비행발전경향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이다. 탈락한 사례와 분류에 부적합한 사례는 모두 526명이었다.

다. 무비행이었던 청소년은 722명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한다.

〈표 IV-6〉 청소년비행의 발전경향

비행발전경향	빈도	백분율
악화형	47	1.6
완화형	1,568	53.4
정체형	392	13.4
병합형	196	6.7
무비행	722	24.7
소계	2,923	100.0

2) 청소년비행 발전경향의 원인분석

청소년비행의 발전경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1/4 가량은 비행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으며 완화형은 53.4%이었다. 무비행과 완화형은 비행성이 없거나 또는 비행을 저질렀더라도 곧 잘못을 반성하고 비행을 자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악화형, 정체형, 병합형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행성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이므로 학교를 비롯한 청소년보호기관이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다음에서는 청소년비행의 발전경향과 관련된 요인을 모집단차별론과 상황의존론을 중심으로 판별하여 청소년비행이 악화형, 정체형, 병합형 등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살펴본다.

〈표 IV-7〉은 성별, 가족구조,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수준과 비행발전경향을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성별의 경우에 남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악화형이 여자에서는 1.2%로 나타나고 남자에서는 2.0%로 나타나 남자들이 악화형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다소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가족구조에서는 결손가족에서 우려스러운 비행발전경향이 다소 많

<표 IV-7> 비행발전경향의 교차분석

비행발전경향	성별		가족구조	
	여자	남자	결손가족	양친가족
악화형	18 (1.2)	29 (2.0)	4 (2.0)	43 (1.6)
완화형	783 (53.2)	783 (53.9)	102 (52.0)	1,464 (53.7)
정체형	191 (13.0)	201 (13.8)	33 (16.8)	359 (13.1)
병합형	93 (6.3)	103 (7.1)	21 (10.7)	175 (6.4)
무비행	386 (26.2)	336 (23.1)	36 (18.3)	686 (25.2)
소계	1471 (100.0)	1452 (100.0)	196 (100.0)	2,727 (100.0)
검증치	chi-square= 6.7 DF= 4, N.S.		chi-square=10.6 DF= 4, P <.05	

비행발전경향	가구주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악화형	1 (0.9)	5 (2.1)	20 (1.6)	1 (0.4)	14 (1.7)	6 (3.3)
완화형	57 (50.9)	130 (55.3)	666 (52.2)	161 (61.0)	463 (54.4)	89 (48.4)
정체형	20 (17.9)	37 (15.7)	195 (15.3)	26 (9.9)	90 (10.6)	24 (13.0)
병합형	11 (9.8)	11 (4.7)	95 (7.4)	21 (8.0)	50 (5.9)	8 (4.4)
무비행	23 (20.5)	52 (22.1)	301 (23.6)	55 (20.8)	234 (27.5)	57 (31.0)
소계	112 (100.0)	235 (100.0)	1,277 (100.0)	264 (100.0)	851 (100.0)	184 (100.0)
검증치	chi-square= 40.8 DF= 20, P <.05					

비행발전 경향	가구주 직업수준							
	전문	사무	서비스	판매	숙련	기능	조립	단순
악화형	7 (2.1)	9 (1.3)	4 (2.5)	5 (2.3)	3 (2.3)	6 (1.5)	11 (2.5)	2 (0.8)
완화형	173 (52.6)	378 (53.8)	92 (57.1)	274 (55.7)	70 (54.3)	227 (54.8)	224 (50.2)	128 (51.4)
정체형	42 (12.8)	82 (11.7)	21 (13.0)	70 (14.2)	18 (14.0)	51 (12.3)	66 (14.8)	42 (16.9)
병합형	13 (4.0)	41 (5.8)	11 (6.8)	38 (7.7)	8 (6.2)	32 (7.7)	34 (7.6)	19 (7.6)
무비행	94 (28.6)	193 (27.5)	33 (20.5)	105 (21.3)	30 (23.3)	98 (23.7)	111 (24.9)	58 (23.3)
소계	329 (100.0)	703 (100.0)	161 (100.0)	492 (100.0)	129 (100.0)	414 (100.0)	446 (100.0)	249 (100.0)
검증치	chi-square=28.7 DF= 28, N.S.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화형이 결손가족출신에서는 2.0%이고 양친가족출신에서는 1.6%로 미세하게 결손가족 출신에서 많고, 정체형은 결손가족에서는 16.8%이고 양친가족에서는 13.1%로, 그리고 병합형도 결손가족에서는 10.7%이지만 양친가족에서는 6.4%에 불과하여 결손가족에서 우려스러운 비행발전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반면에 바람직한 비행발전경향인 완화형과 무비행은 결손가족에서는 52.0%와 18.3%이지만 양친가족에서는 53.7%와 25.2%로 양친가족에서 많이 나타난다. 가구주 교육수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악화형의 경우는 대학원 이상의 졸업에서 3.3%로 가장 많고, 완화형의 경우는 전문대 졸업에서 61.0%로 가장 많고, 정체형과 병합형은 초등학교 졸업에서 17.9%와 9.8%로 가장 많고, 무비행은 대학원 졸업이상 31.0%로 가장 많다. 따라서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 비행발전경향은 유형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 직업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무비행의 경우에 전문직 종사직에서 28.6%로 다른 직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표 IV-8>은 복합적으로 측정된 모집단차별성과 상황의존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비행발전경향별로 분산분석한 결과이다.

갈등가족의 경우에 부모의 갈등수준은 비행발전경향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화형의 평균은 4.0점, 완화형은 3.9점, 정체형은 3.8점, 병합형은 3.9점, 그리고 무비행은 3.3점 등으로 무비행에서 부모의 갈등수준이 가장 낮다. 따라서 청소년이 비행에 빠져드는 데에는 부모의 갈등수준이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악화형, 완화형, 정체형, 병합형별로는 주목할만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양육방식에서는 악화형의 평균이 4.1점, 병합형의 평균이 3.9점, 무비행이 3.0점 등으로 역시 악화형이나 병합형의 평균이 무비행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악화형이나 병합형이 무비행에 비해 강압적 양육방식에 많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개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무비행의 평균이 가장 높다. 악화형의 평균은 18.9점, 완화형은 18.6점, 정체형은 18.6점, 병합형은 18.4점이지만 무비행은 19.7점으로 가장 높다. 이를 통해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청소년들이 가장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며 악화형, 완화형, 정체형, 병합형별로는 주목할만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충동성에서도 무비행의 경우에 충동성 점수가 6.8점으로 가장 낮고 그 외 악화형은 7.3점, 완화형은 7.9점, 정체형은 7.4점, 병합형은 8.5점의 분포를 보인다.

본 연구는 상황의존론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부모애착, 부모통제, 학교애착, 비행친구, 친구애착, 자아긴장, 부모긴장, 학업긴장, 친구긴장, 낙인효과, 비공식통제 등을 고려하였다. 비행발전경향별로 친구애착, 친구긴장, 비공식통제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부모애착에서 악화형의 평균은 19.1점, 완화형은 19.7점, 정체형은 19.3점, 병합형은 19.2점, 무비행은 21.0점이다. 즉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 부모애착의 수준이 가장 높고 악화형 비행발전경향을 보인 사례들의 평균이 가장 낮다.

부모통제도 유사한 경향이다. 악화형의 평균값은 11.3점으로 가장 낮고

무비행은 13.7점으로 가장 높다. 즉 부모통제의 수준이 낮으면 악화형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고 부모통제의 수준이 높으면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추세이다.

학교애착에서도 악화형과 병합형의 평균은 6.7점과 6.6점에 불과하고 반면에 무비행의 평균은 8.0점으로 선생님과 높은 애착관계를 유지하면 비행에 빠져들지 않고 애착관계가 낮으면 악화형이나 병합형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비행친구에서도 무비행은 비행친구가 0.4명에 불과하지만 병합형은 7.3명, 완화형은 4.0점, 악화형과 정체형은 3.4점으로 비행발전경향과 비행친구의 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긴장, 부모긴장, 학업긴장에서도 무비행이 긴장을 겪는 수준이 가장 낮고 자아긴장에서는 병합형이 16.8점으로 가장 높고 부모긴장에서는 악화형이 12.9점으로 가장 높고 학업긴장에서도 악화형이 13.6점으로 가장 높다.

낙인효과에서는 무비행이 2.9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반면에 병합형은 4.3점 또한 악화형은 3.9점으로 주위로부터 높은 수준의 낙인을 겪는 추세이다.

<표 IV-8> 비행발전경향의 분산분석

비행발전경향	갈등가족	양육방식	자아개념	충동성
악화형	4.0	4.1	18.9	7.3
완화형	3.9	3.6	18.6	7.9
정체형	3.8	3.6	18.6	7.4
병합형	3.9	3.9	18.4	8.5
무비행	3.3	3.0	19.7	6.8
검증치	MSS=147.0 ESS=10,028.8 DF=4/2913 F=10.7, P <.05	MSS=224.6 ESS=9,035.2 DF=4/2917 F=18.1, P <.05	MSS=677.8 ESS=40,419.7 DF=4/2913 F=12.2, P <.05	MSS=751.0 ESS=19,941.3 DF=4/2918 F=27.5, P <.05

비행발전경향	자아긴장	부모긴장	학업긴장	친구긴장
악화형	16.6	12.9	13.6	6.3
완화형	15.9	11.7	12.9	6.4
정체형	16.1	11.8	12.9	6.4
병합형	16.8	12.1	13.1	6.4
무비행	14.5	10.2	12.0	6.2
검증치	MSS=1,341.3 ESS=75,685.8 DF=4/2915 F=12.9, P <.05	MSS=1,413.1 ESS=38,676.8 DF=4/2916 F=26.6, P <.05	MSS=527.6 ESS=33,596.3 DF=4/2914 F=11.4, P <.05	MSS=29.2 ESS=18,724.4 DF=4/2913 F=1.1, N.S.

비행발전경향	낙인효과	비공식통제
악화형	3.9	6.0
완화형	3.5	6.2
정체형	3.5	6.0
병합형	4.3	6.0
무비행	2.9	6.0
검증치	MSS=400.0 ESS=7,216.2 DF=4/2918 F=40.4, P <.05	MSS=37.1 ESS=12,797.3 DF=4/2918 F=2.1, N.S.

교차분석과 분산분석으로 모집단차별성과 상황의존성을 측정한 요인이 대부분 비행발전경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차분석과 분산분석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으므로 각 요인의 독립적 영향을 판별할 수 없다. 다음에서는 Logistic 회귀분석⁸⁾을 통하여 비행발전경향에 미치는 모집단차별성 요인들과 상황의존성 요인들의 독립적 효과를 살펴본다.

<표 IV-9>에서 알 수 있듯이, 악화형 비행발전경향에는 상황의존성 요인들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8) 비행발전경향이 등간척도(interval scale)가 아니므로 OLS 회귀분석을 사용할 수 없다. 척도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는 Logistic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한다. Logistic 회귀분석에서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무비행으로 설정하였고 악화형, 완화형, 정체형, 병합형을 가변인(dummy variable)로 코딩하여 악화형 분석모형, 완화형 분석모형, 정체형 분석모형, 병합형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부모통제, 비행친구, 부모긴장, 낙인효과들로 모두 상황의존성과 관련한 요인들이다. 부모통제의 logistic 회귀계수는 $-.1514$ 로 부모통제가 강할수록 악화형으로 발전하는 확률이 감소하며 비행친구의 logistic 회귀계수는 $.2092$ 로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악화형으로 발전하는 확률이 증가한다. 또한 부모긴장의 logistic 회귀계수는 $.1897$ 로 부모로부터 긴장을 많이 겪을수록 악화형으로 발전하는 확률이 증가하며 낙인효과의 logistic 회귀계수는 $.4139$ 로 주위사람으로부터 낙인을 많이 겪을수록 악화형으로 발전하는 확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완화형 비행발전경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모집단차별성을 반영한 요인들 중에서는 충동성 그리고 상황의존성을 반영한 요인들 중에서는 학교애착, 비행친구, 낙인효과 등이다. 정체형 비행발전경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모집단차별성 요인들 중에서는 가구주 교육수준, 상황의존성 요인들 중에서는 부모통제, 학교애착, 비행친구, 부모긴장, 낙인효과 등이다. 끝으로 병합형 비행발전경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모집단차별성 요인들 중에서는 자아개념과 충동성이며 상황의존성 요인들 중에서는 부모통제, 학교애착, 비행친구, 낙인효과 등이다.

<표 IV-9> 비행발전경향에 관한 Logistic 회귀분석

회귀변수	악화형		완화형		정체형		병합형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절편	-6.9859	**	-0.0984		-0.3372		-3.8573	**
모집단차별성								
가족구조	-1.0164		-0.1457		-0.4124		-0.5987	
가구주 교육수준	0.1509		-0.0297		-0.1211	*	-0.0226	
갈등가족	0.1010		0.0654		0.0152		0.0770	
양육방식	0.0642		0.0560		0.0559		0.0924	
자아개념	0.1027		-0.0070		-0.0044		0.0731	*
충동성	-0.0237		0.0818	**	-0.0111		0.1743	**
상황의존성								
부모애착	0.0368		0.0104		0.0071		0.0020	
부모통제	-0.1514	*	-0.0324		-0.0632	*	-0.0849	*
학교애착	-0.1657		-0.1073	**	-0.0767	*	-0.1968	**
비행친구	0.2092	**	0.3104	**	0.2402	**	0.3233	**
자아긴장	-0.0066		-0.0107		-0.0089		0.0148	
부모긴장	0.1897	**	0.0370	*	0.0801	**	0.0123	
학업긴장	0.0649		0.0106		0.0144		-0.0066	
낙인효과	0.4139	**	0.1612	**	0.1876	**	0.4166	**
검증치	-2LL(M) = 87.8 DF=14, P <.01		-2LL(M) = 41 5.0 DF=14, P <.01		-2LL(M) = 19 9.9 DF=14, P <.01		-2LL(M) = 33 3.1 DF=14, P <.01	

*: P <.05, **: P<.01

3. 비행유형의 전문화와 그 설명모델 : 다양성지수를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중2에서 고2에 이르는 4년치의 패널자료에서 비행유형이 얼마나 다양성을 띠는지, 아니면 제한된 특정 유형의 비행만을 저지르게 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개인별로 계산될 수 있는 다양성지수를 이용하는데, 이 다양성지수는 개인이 각 연도의 조사에서 얼마나 다양한 비행유형에 개입되는지를 나타낸다. 이후의 논의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째, 연령(학년)이 증가함에 따라서, 청소년패널표본이 범하는 비행경력
의 다양성은 어떤 추세를 나타내는가?

둘째, 이러한 비행경력의 다양성은 다양한 집단별로 볼 때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셋째, 비행경력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1) 다양성지수의 산출과 그 의미 : 방법론적 검토

다양성 지표(diversity index, d)는 원래 애그레스티 부부(Agresti and Agresti, 1978)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범죄학에서는 범 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민족적 분포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이 범하는 범 죄유형의 다양성을 통해 범 죄경력의 전문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예를 들어 Piquero et al., 1999; Mazerolle et al., 2000; Sullivan et al., 2006).

이 다양성지표는 횡단적인 자기보고식 자료에서도 쉽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개인의 범 죄경력의 전문화 정도를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서 나타내 주며, 또한 이것을 계산하면 쉽게 개인의 전문화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또한 개별자료는 평균을 내는 것도 가능하므로, 집적된 자료에서 나오는 페링턴의 전문화계수와 같은 집단별 평균 전문화의 정도도 역시 쉽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 다양성지수는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되는데, 이것은 어떤 주어진 개인

이 범한 일련의 범죄들로부터 랜덤하게 추출된 두 범죄가 서로 상이한 범죄 유형에 속할 확률이다. 아래 수식에서 d_i 는 특정 개인의 다양성지수이며, p_m 은 그 사람의 범죄의 비율인데, m 은 1, 2, 3,, M 번째까지 존재하는 범죄의 유형을 말한다. 이 다양성지수의 최소값은 0이며, 이것은 완전한 전문화를 의미하게 된다. 반면 완전한 일반화를 의미하는 최대값은 분석에 사용된 범죄유형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d_{\max} = \frac{(k-1)}{k}$ 의 수식에 의해 계산되며 여기서 k 는 범죄유형의 개수를 의미한다(Mazerolle et al., 2000).

$$d_i = 1 - \sum_{m=1}^M p_m^2$$

예를 들어 설리반과 그의 동료들(Sullivan et al., 2006)이 제시한 예를 들어 보면,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된 어떤 사람의 범죄가 10가지 범죄유형 중에 한 건만 있었다면, 다양성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⁹⁾

$$d = 1 - [(0.0)^2 + (0.0)^2 + (0.0)^2 + (0.0)^2 + (0.0)^2 + (0.0)^2 + (1.0)^2 + (0.0)^2 + (0.0)^2 + (0.0)^2]$$

$$d = 1 - 1 = 0$$

반대로 완전한 일반화를 의미하는 최대값이 산출되는 경우는 한 범죄자가 10가지의 범죄유형들 각 한 번씩 범한 경우가 되며, 이 경우 다양성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 = 1 - [(.10)^2 + (.10)^2 + (.10)^2 + (.10)^2 + (.10)^2 + (.10)^2 + (.10)^2 + (.10)^2 + (.10)^2 + (.10)^2]$$

$$d = 1 - .10 = .90$$

9) 그러나 실제의 분석에 있어서는 1건만 범한 사람은 전문화 자체를 논할 대상이 아니므로, 분석을 위한 표본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 죄자는 이러한 양 극단의 어느 중간 정도에 있을 가능성이 큰데, 예를 들어 10건의 범 죄 중에서 절도 4건, 약물 3건, 강간 3건이 있었다면 이 사람의 다양성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 = 1 - [(0.0)^2 + (0.0)^2 + (0.0)^2 + (.40)^2 + (0.0)^2 + (0.0)^2 + (0.0)^2 + (0.0)^2 + (.30)^2 + (.30)^2]$$

$$d = 1 - [(0.0) + (0.0) + (0.0) + (.16) + (0.0) + (0.0) + (0.0) + (0.0) + (.09) + (.09)]$$

$$d = 1 - .34 = .66$$

이러한 다양성지수는 월별, 연도별 그리고 집단별로 모두 계산될 수 있는데, 이렇게 집단별로 다양성지수를 구하는 경우 이 집단별 전문화의 정도는 전통적인 분산분석에 의해 그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정규분포의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비모수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Piquero et al., 1999).

2) 비행경력 의 전문화 추이

다음의 표는 각 패널에서 2건 이상의 비행을 한 청소년들만 가려내어, 학년별로 다양성지수의 분포를 살펴 본 것이다. 먼저 완전한 전문화(하나의 비행유형만 개입함)를 나타내는 0의 값을 갖는 경우가 중2에서는 37.7%이지만, 이후 점점 증가하여 중3에서는 54.8%, 고1에서는 68.1%, 고2에서는 72.5%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일반화를 나타내는 0.4 이상에서 0.6 미만의 값을 갖는 경우나 0.6 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정도의 일반화를 나타내는 0.6 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는 중2에 21.7%였던 것이 점점 감소하여, 중3에서는 14.1%, 고1에서는 6.0%, 그리고 고2에서는 3.1%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범하는 범 죄유형이 특정 유형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10> 학년별 다양성지수의 분포

범주	중2	중3	고1	고2
0	475(37.7)	485(54.8)	673(68.1)	883(72.5)
0 초과 - 0.4 미만	148(11.7)	92(10.4)	119(12.0)	165(13.6)
0.4 이상 - 0.6 미만	365(29.0)	183(20.7)	137(13.9)	132(10.8)
0.6 이상	273(21.7)	125(14.1)	59(6.0)	38(3.1)

다음의 표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행경력의 다양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통해 살펴 본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비행경력의 다양성은 중2에서 고2로 성장하는 동안에 일관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표준편차 또한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제한된 유형의 비행에 가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비행경력의 전문화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11> 학년에 따른 평균 다양성지수

학년	사례수	평균 다양성지수	표준편차
중2	1,261	.28	.90
중3	885	.28	.90
고1	988	.23	.86
고2	1,218	.20	.83

다음의 표는 집단별로 평균 다양성지수가 어떤 추이와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 본 것이다.

우선 성별에 따른 다양성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적으로 다양성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마도 이것은 여학생이 개입할만한 비행유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 정도는 중3과 고1에서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가주택소유 여부별로 다양성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감소의 추이도 두 집단별로 유사했다.

월가구소득별로 다양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다양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띠었지만,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오히려 다양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추세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학력별로 다양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 정도의 학력에서 자녀들이 범하는 비행의 다양성이 가장 낮았으며, 학력이 낮거나 아니면 더 높은 경우에는 다양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성의 수준은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다양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서울, 부산/경남, 인천/경기가 상대적으로 다양성이 낮으며 전북, 광주/전남, 강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령의 증가에 따른 다양성의 감소는 모든 지역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진학한 고교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례 수가 적은 특목고가 연령별 다양성지수가 크게 차이나지만 어떤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표 IV-12> 개인적 배경요인별 집단별 평균 다양성지수의 추이

변수	범주	학년			
		중2	중3	고1	고2
성별	남성	.34	.25	.15	.12
	여성	.31	.21	.13	.09
자가주택소유	자가	.32	.22	.13	.11
	비자가	.33	.23	.16	.11
월가구소득	-100	.37	.27	.16	.12
	101-200	.30	.20	.15	.11
	201-300	.32	.22	.13	.10
	301-400	.29	.21	.09	.10
	401-	.34	.25	.17	.11
부 학력	초등학교 이하	.36	.25	.17	.09
	중학교	.35	.24	.12	.11
	고등학교	.32	.21	.13	.10
	전문대	.30	.16	.13	.07
	대학교	.32	.23	.14	.12
	대학원 이상	.30	.33	.16	.10
거주지역	서울	.29	.24	.16	.10
	강원	.33	.37	.16	.15
	대전/충남	.33	.25	.11	.11
	충북	.42	.26	.20	.09
	인천/경기	.33	.21	.13	.09
	광주/전남	.38	.25	.15	.15
	전북	.30	.31	.19	.09
	부산/경남	.29	.18	.12	.10
	대구/경북	.33	.20	.15	.15
진학교고 유형	일반고	.30	.21	.37	.09
	특목고	.34	.04	.24	.04
	실업고	.37	.08	.18	.14
	기타	.32	.04	.25	.13

다음의 표는 이론적 변인별로 비행경력의 다양성을 살펴 본 것이다.

우선 결손가정여부별로 다양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결손가정 자녀의 경우 일관되게 비결손가정 자녀에 비해서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특히 중3과 고1 기간에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만 12세 이전의 중비행(가출, 성관계, 폭행, 패싸움, 갈취, 절도,

성매매, 협박, 집단따돌림, 성폭행/성희롱) 여부별로 다양성의 차이를 살펴 보면, 만 12세 이전에 이런 중비행의 경험이 있는 조기비행자(early starters)는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서 다양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비행을 일찍 시작하는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비행에 개입되는 일반화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화경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역시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비행친구의 유무별로 다양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비행친구가 있는 집단이 비행친구가 없는 집단에 비해서 일관되게 더 높은 다양성을 나타내지만, 두 집단 모두 역시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다양성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입건을 당한 친구가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살펴 본 경우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입건을 당한 친구가 있는 경우는 대체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높은 다양성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두 집단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부모님의 폭력을 보거나 경험한 정도별로 다양성의 수준을 살펴 보면, 부모님의 폭력을 많이 경험하거나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높은 비행경력 다양성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폭력을 자주 접하는 청소년일수록 더 다양한 비행에 개입하고 있었다.

반대로 부모님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그리고 부모님의 통제가 강할수록 비행경력 다양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교 시절과는 달리 고등학교 때에는 오히려 부모님의 통제가 중간 정도인 경우에 비해서 오히려 강한 경우가 더 높은 다양성을 나타냈으며, 이것은 부모님에 대한 애착에서 고2 시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낮은 자기통제력도 비행경력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시 말해서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의 다양성은 증가하였으며, 역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행의 다양성은 감소하였다.

또 다른 통제요인으로서 선생님에 대한 애착별로 비행경력 다양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선생님에 대한 애착이 강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대체로 범하는 비행유형이 다양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선생님에 대

한 애착이 약한 청소년은 비행경력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이론변수별 집단별 평균 다양성지수의 추이

변수	범주	학년			
		중2	중3	고1	고2
결손가정여부	비결손	.32	.22	.14	.10
	결손	.33	.28	.19	.11
만12세 이전 증비행 여부	없음	.31	.24	.16	.11
	있음	.41	.28	.18	.16
비행친구유무	없음	.30	.21	.13	.10
	있음	.43	.31	.20	.17
입건친구유무	없음	.30	.20	.13	.10
	있음	.43	.36	.20	.18
부모폭력학습	하	.26	.19	.12	.10
	중	.34	.22	.13	.10
	상	.36	.27	.17	.12
부모에 대한 애착	하	.36	.26	.15	.12
	중	.32	.22	.15	.09
	상	.29	.19	.12	.10
부모의 통제	하	.36	.26	.17	.14
	중	.32	.20	.10	.08
	상	.29	.20	.14	.09
낮은 자기통제력	하	.25	.14	.08	.08
	중	.30	.22	.15	.10
	상	.40	.29	.17	.13
선생님에 대한 애착	하	.36	.26	.16	.12
	중	.31	.20	.13	.11
	상	.30	.22	.13	.09
자아존중감	하	.37	.26	.16	.10
	중	.33	.23	.14	.11
	상	.28	.19	.11	.10
공부압력	하	.30	.20	.14	.11
	중	.32	.22	.13	.09
	상	.36	.27	.15	.12
스트레스	하	.28	.19	.14	.11
	중	.32	.23	.14	.09
	상	.35	.26	.14	.11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다양성과의 관계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범하는 비행의 다양성은 낮은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비행경력 다양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통제가 강할수록 비행의 다양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긴장과 관련된 요인들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반대로 나타나는데, 먼저 공부압력이 강한 경우 비행의 다양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공부압력이 약한 경우 비행의 다양성은 낮게 나타났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스트레스가 강할수록 비행유형이 다양해지는 반면, 스트레스가 약할수록 비행유형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요인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행의 다양성은 감소,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행을 전문화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적은 유형의 범죄에 개입하고 있었으며, 집단별로는 남자청소년, 자가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 극빈층,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가 다양한 비행에 개입하고 있었다. 또한 이론적 변수별로는 결혼가정이거나 비행이나 입건친구가 있는 경우, 사회적 또는 개인적 통제가 약할수록, 긴장을 강하게 느낄수록 다양한 비행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입하는 비행은 줄어들고 있었다.

3) 비행유형 다양성의 설명모델

여기에서는 비행유형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회귀모델을 통해서 어떤 변수들이 비행유형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는 각 학년별 다양성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1차년도에 측정된 다양한 독립변수들을 도입한 회귀모델이다.

이 표에 따르면, 각 학년별 다양성지수를 설명하는 요인들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중2의 경우 비행친구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자기통제력, 조기중비행, 스트레스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만 12세 이전에 중비행을 한 청소년일수록, 심리적 스트레스가 강할수록 가입하는 비행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3의 경우는 그 영향력이 강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총비행건수가 많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친구와의 유대가 강할수록,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부모의 폭력을 많이 경험했을수록 비행의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1의 경우는 가장 설명력이 떨어지는 모델로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수도 낮은 자기통제력과 부모의 폭력에 대한 경험 두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부모의 폭력을 많이 경험했을수록 다양한 비행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학년별 비행유형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회귀모델(OLS)

독립변수	다양성지수(β)			
	중2	중3	고1	고2
여성(D)	-.034	-.062	-.060	-.043
SES1	.038	-.017	-.017	-.015
결손가정1(D)	-.027	.047	.050	.003
조기중비행(D)	.160***	.039	.010	.057*
부모폭력학습1	.072*	.072*	.072*	.017
비행친구수1	.177***	.096**	.056	.118***
부모에 대한 애착1	-.018	-.014	.045	.035
부모의 통제1	-.054	-.052	-.070	-.083**
낮은 자기통제력1	.170***	.133***	.144***	.082**
교사에 대한 애착1	-.028	.014	-.033	-.056
친구와의 유대1	.043	.114***	.005	.007
자아존중감1	-.045	-.049	-.036	.016
공부압력1	-.014	.022	-.002	-.004
스트레스1	.071*	.041	-.040	-.027
총비행수1	.043	.176***	.048	.177***
모델 F-test	14.2***	9.25***	3.71***	7.65***
R ²	.146	.138	.054	.087
사례수	1,261	885	987	1,218

고2의 경우는 총비행수, 비행친구수, 부모의 통제, 낮은 자기통제력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총비행수가 많을수록,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부모의 통제가 약할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고2 시기에 다양한 비행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표가 독립변수로서 1차 조사(중2)에서 측정된 변수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다음의 표는 일부 변동이 없는 변인을 제외하고 주로 이론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각 해당 학년도에 측정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비행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것이다. 이 표에서 변수명 뒤에 숫자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각 해당 학년도의 변수들이 독립변수로 사용된 것이다.

<표 IV-15> 학년별 비행유형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회귀모델2(OLS)

독립변수	다양성지수(β)			
	중2	중3	고1	고2
여성(D)	-.034	-.065*	-.050	-.061*
SES1	.038	-.007	-.020	-.030
결손가정1(D)	-.026	.052	.056	.016
조기중비행(D)	.160***	.053	.009	.038
부모폭력학습	.072*	.091**	.072*	.028
비행친구수1	.177***	.122***	.075*	.112***
부모에 대한 애착	-.018	-.004	-.058	-.032
부모의 통제	-.054	-.023	-.009	-.026
낮은 자기통제력	.170***	.122***	.193***	.187***
교사에 대한 애착	-.028	.043	.005	-.032
친구와의 유대	.043	.060	.020	.001
자아존중감	-.045	-.059	-.031	-.066*
공부압력	-.014	-.012	-.061	-.003
스트레스	.071*	.104**	.064	.021
총비행수	.043	.178***	.021	.136***
모델 F-test	14.2***	9.52***	6.12***	9.57***
R ²	.146	.144	.088	.109
사례수	1,261	866	971	1,188

이 표에서 첫 번째 칼럼에 있는 중2시기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모델은 앞에서 살펴본 모델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중3부터 고2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중3을 살펴보면, 중2와 유사하게 비행친구수, 낮은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부모폭력에 대한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새로이 총비행수와 여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조기중비행의 영향력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총비행건수가 많을수록,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심리적 스트레스가 강할수록, 부모의 폭력을 많이 경험했을수록, 남성일수록 중3시기에 다양한 비행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1의 경우는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부모의 폭력을 많이 경험할수록 다양한 비행에 개입하고 있었다. 고2의 경우도 유사하게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다양한 비행에 개입하고 있었지만, 그 외에도 총비행건수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고2 시기에 다양한 비행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결과를 요약하면, 비행친구수나 자기통제력, 부모의 폭력 경험, 총비행수, 조기 중비행이 비행의 다양성에 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비행친구수가 적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폭력을 덜 경험할수록, 총비행건수가 적을수록, 비행경력에 늦게 진입할수록 제한된 유형의 비행에만 개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V.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정책 제언

V. 결론

1. 연구의 요약

이 연구에서는 중2에서 고2에 이르기까지 4년동안 조사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비행유형의 발전경향을 유형별 실태와 전문화 실태의 두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행발전 단계는 주로 초기에 술과 담배 등의 지위비행에서 시작했다가 이후 점차 폭력비행이나 재산비행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반수 이상의 비행청소년이 차년도에 더 이상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 청소년생활로 회귀함으로써 비행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한 두번의 비행을 저지르며 이후는 그만 두는 단기 비행청소년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행에 빠져드는 장기 비행청소년과 같이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일정 수준의 전문화 발전경로를 발견할 수 있다. 전년도에 지위비행을 저지른 사례들 중에서 차년도에 또다시 지위비행을 저지른 비율은 58.1%로 나타나 전년도와 차년도에 걸쳐 지위비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 외 폭력비행에서도 차년도에 폭력비행을 반복한 경우는 8.2%로 무비행과 지위비행을 제외하고 차년도의 다른 비행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이다. 재산비행에서도 차년도에 또다시 재산비행을 저지른 경우는 3.1%, 지위비행과 재산비행을 저지른 경우는 4.7%, 재산비행을 포함하여 다른 비행을 저지른 경우가 4.7% 등으로 전년도에 저지른 비행유형과 차년도에 저지른 비행유형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셋째, 전기간에 걸친 청소년비행의 발전양상을 분석했을 때에 그 종류는

522가지에 달할 정도로 매우 다양하였다. 가장 많았던 발전양상은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경우로 722명(20.9%)이다. 그 외에 빈번했던 발전양상은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가 4차년도에 들어 지위비행을 저지른 경우가 169명(4.9%), 1차년도와 2차년도에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가 3차년도와 4차년도에 지위비행을 저지른 경우가 144명(4.2%), 1차년도에 폭력비행을 저지르고 2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가 138명(4.0%),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지위비행만을 저지른 경우가 112명(3.2%)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사기간 전기간에 걸친 522 종류의 발전양상은 크게 5가지(악화형, 완화형, 정체형, 병합형, 무비행)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악화형은 청소년비행의 발전양태에서 가장 우려되는 현상으로 조사기간 전기간에 걸쳐서 과거보다 점차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는 유형이다. 조사기간 중에 탈락하거나 분류에 부적합한 사례를 제외한 2,923명 중에서 악화형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47명으로 조사대상자 전체의 1.6%를 차지한다. 반면에 완화형은 조사기간에 걸쳐 과거에 비해 점차 경미한 비행을 저지르는 유형이다. 완화형의 발전경향을 보인 조사대상자는 1,568명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한다. 정체형은 조사기간에 걸쳐 과거비행과 차후비행이 유사한 유형이다. 정체형 발전경향을 보인 사례는 392명으로 조사대상자 전체의 13.4%를 차지한다. 병합형은 조사기간에 걸쳐 악화형과 완화형이 중첩된 유형이다. 병합형은 196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한다. 끝으로 무비행은 조사기간 동안에 비행을 한번도 저지르지 않은 유형이다. 무비행이었던 청소년은 722명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한다.

다섯째, Logistic 회귀분석을 통하여 비행발전경향에 미치는 모집단차별성 요인들과 상황의존성 요인들의 독립적 효과를 살펴본 결과, 악화형 비행발전경향에는 상황의존성 요인들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완화형 비행발전경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모집단차별성

을 반영한 요인들 중에서는 충동성 그리고 상황의존성을 반영한 요인들 중에서는 학교애착, 비행친구, 낙인효과 등이었다. 정체형 비행발전경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모집단차별성 요인들 중에서는 가구주 교육수준, 상황의존성 요인들 중에서는 부모통제, 학교애착, 비행친구, 부모긴장, 낙인효과 등이었다. 끝으로 병합형 비행발전경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모집단차별성 요인들 중에서는 자아개념과 충동성이며 상황의존성 요인들 중에서는 부모통제, 학교애착, 비행친구, 낙인효과 등이었다.

여섯째, 다양성지수를 통해서 비행경력에 다양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적은 유형의 범죄에 개입하고 있었으며, 집단별로는 남자청소년, 자가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 극빈층,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가 다양한 비행에 개입하고 있었다. 또한 이론적 변수별로는 결손가정이거나 비행이나 입건친구가 있는 경우, 사회적 또는 개인적 통제가 약할수록, 긴장을 강하게 느낄수록 다양한 비행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입하는 비행은 줄어들고 있었다.

일곱째, 여러 독립변수들을 도입하여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비행친구수, 자기통제력, 부모의 폭력 경험, 총비행수, 조기 중 비행이 비행의 다양성에 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비행친구수가 적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폭력을 덜 경험할수록, 총비행건수가 적을수록, 비행경력에 늦게 진입할수록 제한된 유형의 비행에만 개입하는 전문화경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책적 제언

이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매우 풍부한 함의를 담고 있다. 그것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지위비행에 대한 대처매뉴얼의 개발과 시행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위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비행을 지속하는 비율이 높았고 폭력비행이나 재산비행으로 전이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발전양태가 처음에는 술, 담배, 가출 등에서 시작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점차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위비행의 이러한 잠재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지위비행청소년에 대한 대처활동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학교에서는 지위비행이 학생들 사이에 만연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처를 포기하거나, 심지어 일부의 학교에서는 교육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여 지위비행을 조장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법에서는 지위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우범청소년으로 명명하여 청소년사법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지위비행청소년이 관리된 경우는 2003년에는 없고, 2002년에 1명, 2001년에 2명, 그리고 2000년과 1999년에는 전무할 정도로 거의 방치하는 상태이다(이순래, 2007: 1061).

지위비행은 성인의 경우는 허용되고 또한 타인에 대한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흡연과 음주를 하고, 가출이나 무단결석을 한 청소년에 대해서 강압적 징계와 처벌을 활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해당 청소년의 반감을 불러일으켜 더욱 나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위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이후 악화형 비행발전경향으로 전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방치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위비행청소년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신중하고도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담당부처(예, 국가청소년위원회, 법무부, 교육부 등)에서 각 학교의 일선 담당교사나 시설단체의 지도자들이 시행할 수 있는 지위비행 청소년에 대한 일상적 대처매뉴얼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대처매뉴얼에는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이 폭력, 재산비행으로 전이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리고, 지위비행에 대한 대처가 중요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음주, 흡연 등 지위비행의 유형별로 상담방법, 캠페인활동(스티커, 결

의대회 등), 학교내 예방교육, 의료적 지원방법 등 실질적인 대처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학교나 시설단체에서 지위비행청소년에 대한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 내지 제 18조)에서는 비행청소년을 위해 상담, 교육, 자원봉사, 수련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추가로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예산확보가 미비하여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에 근거하여 담당부처(예, 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부 등)에서 예산을 확보, 각 학교나 시설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 지위비행 대처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에서 관련단체(예,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를 통하여 2007년 기준 연간 약 20개 정도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담배없는 맑은 학교만들기’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위험집단(risk group)에 대한 집중적 비행대처활동의 시행

최근 들어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에서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의 재범현상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비행청소년들 중에서 심각한 비행유형으로 발전하는 악화형과 병합형 비행발전경향을 보인 경우는 1.6%와 6.7%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의 청소년들이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을 고려할 때에 비행청소년의 선도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은 충분할 수 없다. 제한된 인력과 시설로 청소년비행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비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은 위험집단이 누구인지를 판별하고 이들에 대해 가능한 많은 인력과 시설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인력과 시설을 투입하더라도 이러

한 노력을 악화형과 병합형 비행발전경향을 보인 청소년을 위험집단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비행예방노력을 집중한다면 최근 들어 심각해지는 청소년재범현상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 대처방안이 될 것이다.

첫째, 청소년들 중 청소년 비행 위험집단에 대한 판별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이 시행되어야 한다. 관련 정부부처(청소년위원회, 교육부 등)에서 청소년 비행 위험집단에 대한 판별 매뉴얼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나 시설의 담당 교사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사,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지역사회 관계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청소년비행 위험집단에 대한 판별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비행 위험집단에 대한 집중적 비행대처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관련 부처에서 청소년비행 위험집단 청소년들에 대한 분노조절, 폭력관리 등 비행대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단체에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담당케 하여 청소년 비행 위험집단으로 판별된 청소년들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케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사법체계 중심의 청소년 비행 대처체계에 비해 청소년들을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비행에 대한 교육적 대처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이나 사회 모두에게 장점이 될 수 있다.

3) 비행악화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담당교사 연수강화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악화형이나 병합형 비행발전경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애착, 비행친구, 낙인효과 등이 판별되었다. 학교애착이 약할수록 악화형이나 병합형 비행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이러한 비행발전경향이 많았고, 또한 주위사람으로부터의 낙인을 많이 겪을수록 역시 악화형이나 병합형 비행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학교애착, 비행친구, 낙인효과는 모두 청소년들이 접하는 교육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이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친근하게 느끼고, 비행친구들과의 접촉이나 교제가 차단되고, 주위사람들로부터의 낙인을 적게 겪을 수 있

는 교육환경의 조성이 비행악화의 방지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위사람들로부터의 낙인효과와 비행친구는 모든 비행발전경향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을 저질렀다고 주위사람으로부터 배척되고 차별대우를 받는 청소년들은 유사한 처지의 청소년들과 어울리고 교체함으로써 더욱더 비행성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을 배척하고 격리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포용하고 건전한 청소년생활에 재통합시키려는 교육환경의 구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비행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담당교사들의 행위지침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일선 학교의 담당교사들의 연수시에 비행청소년들의 비행악화방지를 위한 학교애착, 낙인방지, 비행친구 교체단절 등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매뉴얼형태로 보급, 시행케하여 비행청소년들의 비행악화형 교육환경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

4)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폭력비행이나 재산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이후에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 청소년생활로 회귀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또한 이들은 차후 비행에서도 폭력비행이나 재산비행을 반복하는 전문화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폭력비행청소년이나 재산비행청소년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비행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비행방법이나 자신의 비행을 정당화하는 합리화기술을 익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행에 대처하는 방안에는 비행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특정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국한하여 대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청소년비행의 발전경로가 지위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 등 이것저것 기회가 닿는대로 저지르는 일반화 경향이라면 비행청소년 전체의 대처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폭력비행이나 재산비행을 반복하는 전문화경향일 경우는 청소년들이 특정한 비행유형을 중심으로 비행방법이나 합리화기술을 내면화하였으므로 이들에 국한한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관련 담당부서에서 청소년비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에, 폭력 비행청소년 특별프로그램, 재산비행청소년 특별프로그램과 같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보급과 함께 관련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에 이의 시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5) 취약집단청소년에 대한 학교-청소년지원센터간 상담지원시스템의 강화 또한 자가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 극빈층,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 결손가정이거나 비행이나 입건친구가 있는 경우, 사회적 또는 개인적 통제가 약할수록, 긴장을 강하게 느낄수록 다양한 비행에 무차별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한 CYS-net체계내의 청소년수련관 등의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청소년상담지원체계를 잘 갖춰놓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들 청소년상담지원시스템을 활용, 연계활동을 강화하여 이들 취약집단청소년의 비행에 대해 국가가 조기에 개입함으로써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원하고 악화의 경로를 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일선 학교에 CYS-net체계내의 청소년상담관련기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집단 비행청소년을 위한 학교-청소년지원센터간 연계시스템을 구축,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준호/이순래

1994, 소년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준호/이순래

1995,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병기/노성호

1994, 소년범죄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병기/류철원

1995, 범죄경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순래

1995, 범죄지속의 원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3호: 107-138.

이순래

2005, 지속적 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Moffitt의 이질적 비행발생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4호: 269-300.

이순래

2007,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1047-1080.

최인섭/박철현

1995, 재산범 출소자의 재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Agnew, R.

1985,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 longitudinal test",
Criminology 23:47-61.

Agresti, Alan, and Barbara F. Agresti.

1978. "Statistical Analysis of Qualitative Variation." Sociological
Methodology(9):204-237

Akers, R.

1985,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3rd ed., Belmont, Calif.:
Wadsworth.

Becker, H.

- 1963, *Outsiders*,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 Blumstein, A.J., Cohen, J., A. Roth, & C.A. Visher
1986, *Criminal Careers and Career Criminals*. Vol.(1),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Britt, D. & E. Campbell.
- Braithwaite, J.
1989,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rsik, P.J.Jr.
1980, "The dynamics of specialization in juvenile offenses," *Social Forces* 58
(3): 851-864.
- Datesman, S. K. & M. Aickin
1984, "Offense specialization and escalation among status offenders,"
Criminology: 1246-1227.
- Donovan, J.E. & R. Jessor
1985, "Structure of problem behavior o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890-894.
- Farrington, D.P.
1977, "The effects of Public labelling, "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17:112-125.
- Gottfredson, M. R. &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 G., C. R. Tittle, R. J. Bursik, Jr., & B. J. Arneklev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1):50-29.
- Heckman, J.
1981, "Statistical models for discrete panel data, "in C. F. Manski and
D. McFadden (eds.), *Structural Analysis of Discrete Data with Econometric
Applications*, Cambridge, Mass.: MIT Press.
- Hirschi, T. & M. Gottfredson
1993, "Commentary: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1):47-54.
- Jensen, G.F.

- 1972, "Delinquency and adolescent self-conceptions: A study of the personal relevance of infraction," *Social Problems* 20:84-103.
- Keane, C., P.S. Maxin, & J.J. Teevan
 1993, "Drinking and driving, self-control, and gender: Test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1):30-46.
- Lee, S.R.
 1993, *Reintegrating Youthful Offenders into Communities: An Empirical Examination of Braithwaite's Theory on Reintegrative Shaming*, Dissertation.
- Lemert, E.
 1972,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2nd ed.,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 Mazerolle, Paul, R. Brame, Ray Paternoster, Alex Piquero, and Charles Dean.
 2000. "Onset Age, Persistence, and Offending Versality: Comparisons across Gender." *Criminology*(38):1143-1172
- Nagin, D.S. & D.P. Farrington
 1993, "The stability of criminal potential from childhood to adulthood," *Criminology* 30(2):235-260.
- Nagin, D. & R. Paternoster
 1991, "On the relationship of past to future participation in delinquency," *Criminology* 29(3):163-189.
- Orcutt, J.D.
 1983, *Analyzing Deviance*, Chicago, Illinois:The Dorsey Press
- Osborn, S.G. & D.J. West
 1978,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predictors of criminal careers," *Journal of Adolescence*:101-117.
- Osgood, D.W., L.D. Johnston, P.M. O'Malley, &J.G. Bachman
 1988, "The generality of deviance in late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Feb.):81-93.
- Piquero, Alex, R. Paternoster, P. Mazerolle, R. Brame, and C. W. Dean.
 1999. "Onset Age and Offense Specializ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36):275-299
- Polakowski, M.
 1994, "Linking self-and social control with deviance: illuminating the structure

- underly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its relation to deviant activit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0:4-77.
- Rowe, D.C., W. Osgood, & W.A. Nicewander
1990, "A latent trait approach to unifying criminal careers," *Criminology* 28:237-270.
- Scheff, T.
1966, *Being Mentally Ill*, Chicago, Illinois: Aldine.
- Shannon, L.W., J.L. McKim, J.P. Curry, & L.J. Haffner
1988, *Criminal Career Continuity*, New York, NY: Human Sciences Press.
- Sullivan, Christopher J., Jean M. McGloin, Travis C. Pratt, and Alex R. Piquero.
2006. "Rethinking the "Norm" of Offender Generality: Investigating Specialization in the Short-Term." *Criminology*(44):199-233
- Sutherland, E.
1955, *Principles of Criminology*. 5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 Wolfgang M.E., R.M. Figlio, and T. Sellin
1972, *Delinquency in a Birth Cohor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olfgang, M.E., T.P. Thornberry, & R.M. Figlio
1987, *From Boy to Man, from Delinquency to Crime*,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부 록

1. 청소년비행의 전이
2. 청소년비행의 발전양상

1. 청소년비행의 전이

1) 청소년비행의 전이(제1차년도-제2차년도)(빈도, %)

비행유형	무비행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지위·폭력	지위·재산	폭력·재산	지위·폭력· 재산	소계
무비행	1,299 82.5	190 12.1	43 2.7	9 0.6	21 1.3	3 0.2	1 0.1	8 0.5	1,574 49.4
지위비행	237 41.2	276 47.9	5 0.9	1 0.2	31 5.4	16 2.8	0 0.0	10 1.7	576 18.1
폭력비행	249 65.4	69 18.1	28 7.4	1 0.3	23 6.0	2 0.5	2 0.5	7 1.8	381 12.0
재산비행	21 61.8	5 14.7	1 2.9	0 0.0	1 2.9	2 5.9	1 2.9	3 8.8	34 1.1
지위·폭력	98 29.7	142 43.0	15 4.6	1 0.3	54 16.4	8 2.4	1 0.3	11 3.3	330 10.4
지위·재산	16 23.5	25 36.8	2 2.9	2 2.9	3 4.4	10 14.7	1 1.5	9 13.2	68 2.1
폭력·재산	29 59.2	9 18.4	2 4.1	0 0.0	4 8.2	0 0.0	3 6.1	2 4.1	49 1.5
지위·폭력·재산	37 21.0	49 27.8	6 3.4	3 1.7	26 14.8	10 5.7	6 3.4	39 22.2	176 5.5
소계	1,986 62.3	765 24.0	102 3.2	17 0.5	163 5.1	51 1.6	15 0.5	89 2.8	3,188 100.00

2) 청소년비행의 전이(제2차년도-제3차년도)(빈도, %)

비행유형	무비행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지위·폭력	지위·재산	폭력·재산	지위·폭력·재산	소계
무비행	1,333 71.1	456 24.3	25 1.3	8 0.4	39 2.1	3 0.2	0 0.0	12 0.6	1,876 62.2
지위비행	261 35.8	402 55.1	7 1.0	1 0.1	37 5.1	7 1.0	0 0.0	14 1.9	729 24.2
폭력비행	62 63.3	22 22.5	9 9.2	0 0.0	4 4.1	0 0.0	0 0.0	1 1.0	98 3.3
재산비행	7 41.2	7 41.2	0 0.0	1 5.9	0 0.0	1 5.9	1 5.9	0 0.0	17 0.6
지위·폭력	45 29.4	62 40.5	4 2.6	0 0.0	34 22.2	5 3.3	0 0.0	3 2.0	153 5.1
지위·재산	9 18.0	24 48.0	0 0.0	2 4.0	6 12.0	5 10.0	0 0.0	4 8.0	50 1.7
폭력·재산	8 53.3	4 26.7	0 0.0	0 0.0	1 6.7	0 0.0	1 6.7	1 6.7	15 0.5
지위·폭력·재산	16 20.3	32 40.5	1 1.3	0 0.0	17 21.5	6 7.6	0 0.0	7 8.9	79 2.6
소계	1,741 57.7	1,009 33.4	46 1.5	12 0.4	138 4.6	27 0.9	2 0.1	42 1.4	3017 100.0

3) 청소년비행의 전이(제3차년도-제4차년도)(빈도, %)

비행유형	무비행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지위·폭력	지위·재산	폭력·재산	지위·폭력· 재산	소계
무비행	1,224 70.3	466 26.8	11 0.6	1 0.1	31 1.8	5 0.3	0 0.0	2 0.1	1,740 58.0
지위비행	269 27.0	658 66.1	5 0.5	1 0.1	42 4.2	13 1.3	1 0.1	6 0.6	995 33.2
폭력비행	23 51.1	13 28.9	6 13.3	0 0.0	3 6.7	0 0.0	0 0.0	0 0.0	45 1.5
재산비행	9 69.2	2 15.4	1 7.7	1 7.7	0 0.0	0 0.0	0 0.0	0 0.0	13 0.4
지위·폭력	21 15.6	66 48.9	2 1.5	0 0.0	35 25.9	4 3.0	0 0.0	7 5.2	135 4.5
지위·재산	4 14.8	11 40.7	0 0.0	0 0.0	4 14.8	5 18.5	0 0.0	3 11.1	27 0.9
폭력·재산	1 50.0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1
지위·폭력·재산	5 11.4	20 45.5	0 0.0	0 0.0	8 18.2	3 6.8	0 0.0	8 18.2	44 1.5
소계	1,556 51.9	1,236 41.2	26 0.9	3 0.1	123 4.1	30 1.0	1 0.0	26 0.9	3,001 100.0

2. 청소년비행의 발전양상

종류	연차별 비행경험				빈도	백분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	무비행	무비행	무비행	무비행	722	20.9
2	무비행	무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169	4.9
3	무비행	무비행	무비행	폭력비행	12	0.3
4	무비행	무비행	무비행	결손치	25	0.7
5	무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90	2.6
6	무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144	4.2
7	무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폭력비행	7	0.2
8	무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재산비행	5	0.1
9	무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결손치	4	0.1
10	무비행	무비행	폭력비행	무비행	12	0.3
11	무비행	무비행	폭력비행	지위비행	13	0.4
12	무비행	무비행	폭력비행	폭력비행	6	0.2
13	무비행	무비행	재산비행	무비행	4	0.1
14	무비행	무비행	결손치	무비행	22	0.6
15	무비행	무비행	결손치	지위비행	6	0.2
16	무비행	무비행	결손치	결손치	40	1.2
17	무비행	무비행	병합비행	지위비행	4	0.1
18	무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무비행	34	1.0
19	무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49	1.4
20	무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25	0.7
21	무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61	1.8
22	무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결손치	4	0.1
23	무비행	폭력비행	무비행	무비행	24	0.7
24	무비행	폭력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11	0.3
25	무비행	폭력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7	0.2
26	무비행	폭력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5	0.1
27	무비행	결손치	무비행	무비행	30	0.9
28	무비행	결손치	무비행	지위비행	8	0.2
29	무비행	결손치	무비행	결손치	5	0.1
30	무비행	결손치	지위비행	무비행	4	0.1
31	무비행	결손치	결손치	무비행	15	0.4
32	무비행	결손치	결손치	지위비행	11	0.3
33	무비행	결손치	결손치	결손치	43	1.2
34	무비행	병합비행	무비행	무비행	6	0.2
35	지위비행	무비행	무비행	무비행	85	2.5
36	지위비행	무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44	1.3
37	지위비행	무비행	무비행	결손치	7	0.2
38	지위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23	0.7
39	지위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51	1.5
40	지위비행	무비행	결손치	결손치	15	0.4
41	지위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무비행	48	1.4
42	지위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37	1.1
43	지위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33	1.0

44	지위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112	3.2
45	지위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폭력비행	7	0.2
46	지위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결손치	7	0.2
47	지위비행	지위비행	폭력비행	지위비행	5	0.1
48	지위비행	지위비행	결손치	결손치	9	0.3
49	지위비행	폭력비행	무비행	무비행	5	0.1
50	지위비행	폭력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4	0.1
51	지위비행	폭력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11	0.3
52	지위비행	폭력비행	폭력비행	무비행	5	0.1
53	지위비행	재산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8	0.2
54	지위비행	결손치	결손치	무비행	4	0.1
55	지위비행	결손치	결손치	결손치	21	0.6
56	폭력비행	무비행	무비행	무비행	138	4.0
57	폭력비행	무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52	1.5
58	폭력비행	무비행	무비행	폭력비행	10	0.3
59	폭력비행	무비행	무비행	결손치	11	0.3
60	폭력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21	0.6
61	폭력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60	1.7
62	폭력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결손치	4	0.1
63	폭력비행	무비행	폭력비행	무비행	7	0.2
64	폭력비행	무비행	폭력비행	지위비행	10	0.3
65	폭력비행	무비행	폭력비행	폭력비행	5	0.1
66	폭력비행	무비행	결손치	결손치	11	0.3
67	폭력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무비행	26	0.8
68	폭력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36	1.0
69	폭력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결손치	4	0.1
70	폭력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15	0.4
71	폭력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71	2.1
72	폭력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폭력비행	5	0.1
73	폭력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결손치	5	0.1
74	폭력비행	지위비행	폭력비행	무비행	5	0.1
75	폭력비행	지위비행	폭력비행	지위비행	11	0.3
76	폭력비행	지위비행	폭력비행	폭력비행	4	0.1
77	폭력비행	지위비행	결손치	지위비행	4	0.1
78	폭력비행	지위비행	결손치	결손치	5	0.1
79	폭력비행	폭력비행	무비행	무비행	23	0.7
80	폭력비행	폭력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10	0.3
81	폭력비행	폭력비행	무비행	폭력비행	4	0.1
82	폭력비행	폭력비행	무비행	결손치	4	0.1
83	폭력비행	폭력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7	0.2
84	폭력비행	폭력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21	0.6
85	폭력비행	폭력비행	폭력비행	무비행	7	0.2
86	폭력비행	폭력비행	폭력비행	지위비행	13	0.4
87	폭력비행	폭력비행	폭력비행	폭력비행	10	0.3
88	폭력비행	결손치	무비행	무비행	8	0.2
89	폭력비행	결손치	무비행	지위비행	5	0.1
90	폭력비행	결손치	무비행	결손치	5	0.1
91	폭력비행	결손치	지위비행	지위비행	5	0.1

92	폭력비행	결손치	결손치	지위비행	7	0.2
93	폭력비행	결손치	결손치	결손치	30	0.9
94	폭력비행	병합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4	0.1
95	재산비행	무비행	무비행	무비행	10	0.3
96	재산비행	무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6	0.2
97	재산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4	0.1
98	재산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12	0.3
99	재산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6	0.2
100	재산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13	0.4
101	재산비행	폭력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4	0.1
102	재산비행	재산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6	0.2
103	재산비행	병합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6	0.2
104	병합비행	무비행	무비행	무비행	25	0.7
105	병합비행	무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8	0.2
106	병합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6	0.2
107	병합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13	0.4
108	병합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무비행	5	0.1
109	병합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4	0.1
110	병합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20	0.6
111	병합비행	지위비행	폭력비행	지위비행	4	0.1
112	병합비행	폭력비행	무비행	무비행	7	0.2
113	병합비행	폭력비행	무비행	지위비행	4	0.1
114	병합비행	폭력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9	0.3
115	병합비행	폭력비행	지위비행	폭력비행	4	0.1
116	병합비행	결손치	결손치	결손치	8	0.2
117	병합비행	병합비행	무비행	무비행	6	0.2
118	병합비행	병합비행	지위비행	무비행	5	0.1
119	병합비행	병합비행	지위비행	지위비행	8	0.2
120	병합비행	병합비행	폭력비행	지위비행	7	0.2
121	병합비행	병합비행	폭력비행	폭력비행	4	0.1
122	병합비행	병합비행	결손치	결손치	5	0.1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김기현·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 발달 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김신영·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 발달 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해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김영호·이민희
 07-R05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장근영·김형주
 07-R05-1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인권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박창남·이중섭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체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김희균·조아미·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권일남·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과소비 실태와 대책 / 성윤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최인재·설인자·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해연·서정아·조흥식·정의중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
 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김은정·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
 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
 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배지혜·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le,
 Bethany Willis Hepp·Gudrun Quenzel·Michaela Janotta·Janina Herrmann·Hideki Watanabe·
 Shigeki Matsuda·Yasuaki Aota·Masayuki Ozawa·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한민족 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태기 · 임영언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과 생활실태연구 / 임영상 · 황영삼 · 고가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인나 (자체번호 07-R13-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저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수시과제

-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윤숙
-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 · 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 김기현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 07-R22 초등학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용역과제

-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 · 장근영 · 김남정 · 박정배
-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 · 안전 · 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양계민
-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윤숙 · 임희진
-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 · 연구철 · 이교봉
-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강홍렬 · 고원 · 김민 · 김은경 · 김지선 · 김현주 · 나의순 · 마경희 · 손승영 · 손유미 · 우명숙 · 이승현 · 임천순 · 전상진 · 주용국 · 진미석 · 채재은 · 최규종 · 최순종 · 최화영
-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고원 · 강홍렬
-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 · 김기현
- 07-R38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사생활과 교사학생의 수용성 / 조혜영 · 이창호
- 07-R39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인재 · 김경준 · 백혜정 · 강진구 · 김태희 · 송미경 · 이유미
-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 · 조혜영 · 이춘화 · 김경준 · 김현철 · 김기현 · 임희진 · 임지연 · 길은배 · 김민 · 유희식 · 전명기
-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 · 김은정 · 백원근 · 허병두
-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 · 황진구
-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수용도 조사 연구 / 김영한 · 송병국 · 오홍식
-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 · 장근영 · 김호순
-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자 · 김승규 · 송순재
-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 · 김기현
-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김형주
-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 · 이경상
-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 오해섭 · 이혜연
-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 · 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 (1.23~24)
- 07-S02 「Internation Conference on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 (4.20)
-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 (5.12)
-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 (8.17~18)

-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 (6.28)
-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 (7.3)
-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7.5)
-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 (7.20)
-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7.20)
-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 (9.11)
-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9.13~14)
-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9.14)
-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9.14)
- 07-S14 「한민족 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10.30)
-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11.1~2)
-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9)
-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 (11.27)
-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11.29)
-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12.7)
-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 (12.24)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연구보고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인 쇄 2007년 12월 21일

발 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크리홍보(주) 전화 (02)737-5377 대표 김규만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684-3(93330)